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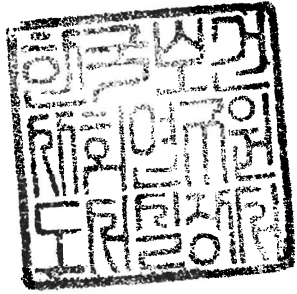
1990년대 人口政策 變化와 人口情報*

“The Role of Population Information in Response to
Changing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for the 1990s”,
Population Research Leads, No. 34, ESCAP, 1990.

【目 次】

1. 要約 및 政策的 意味	3
2. 새로운 人口問題	5
3. 發展過程에서 情報의 役割	15
4. 人口情報센터와 네트워크의 現況	19
5. 人口情報의 未來	20
6. 人口目標 達成을 위한 여러가지 情報	23

* 이 글은 1990년 6월 4-13일 동안 열렸던 46차 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要約 및 政策的 意味

情報은 사회·경제 발전에 필요한 여러 기둥 중의 하나이다.

1990년대에 人口情報은 國家發展 분야의 새로운 관심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政策과 事業을 開發하는 데, 그리고 政策수립자와 개발계획 수립자가 변화하는 인구 구조, 인구분포, 그리고 인구, 자원, 환경과 지속되는 발전과의 관계와 같은 人口問題들이 國家 開發計劃 樹立過程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새로이 인식하는데 중요하고 활력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統合을 빨리 이룰 수 없는 이유들 중에는 人口와 發展의 통합추세에 대한 정확한 情報의 缺乏, 政策수립자 및 계획수립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어떤 종류 인지를 연구자가 밝혀 낼 수 있는 분석들의 缺如, 그리고 政策, 계획 및 사업관련 결정의 바탕이 되는 충분한 研究結果의 不足 등이다.

특정국가에서 인구자료와 情報가 量이나 質에 있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는 이들 국가기관이 사용자를 위해 정보를 얼마나 잘 蒐集, 處理, 分析해서 配布하느냐에 달려있다.

초창기에 이런 기관이 없었을 때는 ESCAP이 정부가 이를 시작하도록 돕는 觸媒的 역할을 했다. 아·태 지역 인구네트웍(Asia-Pacific POPIN)의 調整者로서 이일을 담당할 국가의 인구정보센터와 네트웍을 보다 발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왔다. 국가 정보센터와 네트웍을 원하는 나라에 적절한 人口資料와 技術支援을 제공했으며, 인구정보센터와 네트웍이 설립된 13개 국가를 위해 專門人力 訓練을 담당해 왔다. 또한 ESCAP의 여러가지 인구정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方式으로서 TCDC(개발도상국간 기술협력)를 제도화 시켰다.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했기 때문에 收錄된 人口情報에 접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情報資源을 連結시키는 일이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미 쉽다.

실제로 이지역 온라인 체계는 현재 몇몇 국가에만 開發되어 있지만, 만약에 텔레

커뮤니케이션이, 아마도 人工衛星을 통해서, 설립되어 모든 사용자가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여러 ESCAP지역 개발도상국이 事實 및 本文 情報과 강력한 檢索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거대하게 貯藏된 書誌 資料에도 接近할 수 있게 되는 바, 이는 가장 첨단의 技術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이와같은 인구 및 관련 문제에 대한 情報과 知識은 ESCAP지역 内外의 도서관, 정보센터, 데이터 베이스와 컴퓨터 화일에 방대한 양이 貯藏되어 있으나 이것이 모두 활용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정보공급과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需要를 刺戟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 데이터 베이스는 보다 발전된 技術로 질적 교환을 포함, 보다 改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참고문헌과 자료검색이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한 事實과 知識 檢索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다른 것으로는 정보를 글자와 그래픽 형태로 제공하는 意思傳達 體系인 비데오텍스의 사용, 수만 페이지 책 전체를 담을 수 있는 비데오디스크, 들고 다닐 수 있는 판독기와 터미널, 데이터 베이스들간의 연결을 가능케하는 상호 연결 네트워크, 그리고 문자나 비데오 형태로 전화비용 정도로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는 文獻記錄 뿐 아니라 사실, 자료 그리고 내용을 모두 담은 데이터 베이스 등이다.

앞으로 10년 동안에도 人口情報 生産物의 1차(책, 잡지, 보고서), 2차(도서실 카타로그, 요약 및 인덱스 서비스, 데이터 베이스) 및 3차(재포장한) 출판물은 電子技術을 통한 生産(책상 위 출판)과 配布(전자기술을 통한 자료 상호 교환)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해야할 일은 이들 類型의 情報가 모두 유용하도록 기술을 익히는 일이다. 그래서 人口問題 解決과 아·태 지역 수십억의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용가능한 정보를 모두 제한없이 사용한다는 새로운 地平을 여는 것이다.

2. 새로운 人口問題

1980년대 10년동안 인구정책과 사업에 대한 接近方法은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과거 20년간 출산력 감소와 인구성장을 저하에서 큰 成功을 거두었으므로 이제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가서 人口事業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영역을 포함시켜 넓은 의미에서 국가 발전 문제와 연결시키고자 事業方向을 새로 設定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로써 인구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방법도 달라지고 있다.

1990년대에 인구정보는 국가발전 분야의 새로운 관심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政策과 事業을 開發하는 데, 그리고 정책수립자와 개발계획 수립자가 변화하는 인구구조, 인구분포, 그리고 인구, 자원, 환경과 지속되는 발전과의 관계와 같은 人口問題들이 國家 開發 計劃 樹立過程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새로이 인식하는 데 중요하고 활력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요소는 계속해서 인구정책 수립의 支援要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태지역 개발도상국들이 統合된 자료와 정보/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를 널리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인구관련 사업시행에 있어 보다 直接 關聯될 전망이다.

그러나 1990년대 및 그이후 인구정보의 새로운 方向을 어떤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몇 등장하는 인구문제의 展開와 現狀, 그리고 그들의 政策 關聯 意味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人口와 發展

인구성장을 비롯한 여러 人口要因들은 國家發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社會經濟的 변인과 영향을 주고 받는다. 사실 인구목표와 인구정책은 국민의 생활 수준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의 국가사회 경제발전에 포함된 일부이다.

人口와 發展의 統合은 따라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의 하나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1972년 동경에서 열린 제 2차 아시아 인구대회에서 인구요인을 전반적 발전계획안에 필히 統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 이같은 견해는

1974년 부카레스트에서 열렸던 UN 세계 인구회의, 1975년 방콕에서 열렸던 지역별 세계 인구회의, 1982년 콜롬보에서 열렸던 제 3차 아시아 태평양 인구회의, 그리고 1984년 멕시코에서 열렸던 세계 인구대회 등 국제회의에서 계속 反復되었었다. 제 3차 아·태지역 인구회의에서 채택한 인구와 발전에 관한 아·태지역 行動綱領에서도 인구와 경제사회 발전에 포함된 인구관련 사업에 대하여 統合的 接近法을 開發,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인구요인과 발전과정과의 相關關係를 인식하는 ESCAP지역 개발도상국의 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인구계획이 전반적 국가발전 계획의 필수적 요소임을 깨닫고 이를 통합시켜야 할 나라가 많다. 統合을 빨리 이룰수 없는 이유들 중에는 인구와 발전의 통합 추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缺乏, 정책수립자 및 계획수립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어떤 종류인지를 연구자가 밝혀 낼 수 있는 분석틀의 缺如, 그리고 정책, 계획 및 사업관련 결정의 바탕이 되는 충분한 研究結果의 不足 등이다.

이 지역의 여러 개발도상국의 經濟構造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정책 및 계획수립자가 단기적 사회경제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볼 때 정책 및 계획 수립자가 여러가지 人口 및 發展 問題에 대한 最新 情報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 變化하는 人口構造

ESCAP지역은 약 20년전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人口變遷과 더불어 出生率을 낮추고 기대수명을 늘리는 데 크게 성공했다.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수십년은 계속 될 것이여서, 1965-1970년간 연 인구성장율은 2.42%였고 1985-1990년간은 연 1.8%였으나 2005-2010년 기간에는 1.17%로 감소될 것으로 推計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1990-2010년의 20년 동안은 인구성장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人口數는 그전 20년 동안보다 큰 폭으로 증가될 전망이다.¹⁾

短期 國家發展 計劃은 인구의 계속적인 팽창에 대처해야 할 뿐 아니라 출산력과

사망률 감소에 따른 人口構造의 變化의 意味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중에는 경제, 사회 발전에 利得이 되는 부문도 있다. 이 지역 0-14세 인구비율은 1990년 32.4%에서 2010년에는 27%로 감소될 것이고 또한 매년 노동인구 연령층으로의 유입 인구비율도 약간씩 줄어들 전망인 바, 이는 앞서서 나타난 출산력 감소를 반영한다.

한편으로 勞動人口의 平均年齡은 점차 증가하므로 빠른 산업화 시기에는 직업 재훈련과 기술향상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도 증가비율이 늘어날 것인데 특히 出產率이 낮은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질 것이다.

국가발전 계획 수립자는 이 巨視的 傾向이 家族構造와 家族構成員 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勞動人口의 상당수가 산업분야에서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취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동인구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매우 중요해 질 것이다.

○ 人口의 老齡化

아·태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60세 이상 인구수나 인구비율의 증가가 가속화되는 결과를 낳는 빠른 人口變遷을 경험하고 있다. 2000년경에는 세계 5억9000만 노인 인구의 약 반이 ESCAP지역에 살게 될 것인데, 中國 한나라에 1억2700만 이상이 살 것이며, 일본에는 세계 노인의 1/5이상이 살게 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홍콩, 뉴질랜드, 한국 및 싱가포르도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0-1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출산력과 기대수명 같은 인구학적 요인의 빠른 변화가 人口年齡構造 變化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인 반면에 人口老齡化는 순수 인구학적 현상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이것은 사회경제적 모든 면에서 의미를 갖는 發展問題 以上の 그 무엇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인구노령화는 가족, 지역사회 및 국가차원에서 모든 연령집단을 포함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및 경제사회적 역동적 과정과 여러가지 의미에서 관련을 갖는다. 그러므로 인구노령화 요인을 農業 및 農村開發, 人口移動,

都市化, 産業化 및 社會經濟的 力學 關係의 構造的 變化 등과 관계 속에서 발전 계획에 통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노동인구 연령구조와 이 인구 노령화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대한 의미를 잘 고려해서 長期 發展戰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정책 및 사업도 미래 노인인구의 특성을 고려하고, 또한 농촌과 도시지역 모두 노인인구에 따른 사회경제적 계획 교체에 대비해서 計劃案을 마련해야 한다.

나라마다 다르고 또 나라안에서도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를 띠는 家族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 단위로서 노인이 支援을 주고 받으며 1차적 社會統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만으로는 충분하기 어렵고 또한 최근의 빠른 사회 경제적 변화의 결과로 커다란 압박과 새로운 적응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노인을 보살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家族關係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노인들은 높은 自立 可能性을 갖고 있으며 사회, 경제발전 전반에 걸쳐 가족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 그들은 가능하다면 언제라도 기여를 할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그들이 계속 生産活動과 自己開發을 활성화하고 여가활동, 사회생활 및 경제발전예 적극 참여할 수 있는 友好的인 環境造成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령화에 대해 肯定的 시각을 갖고, 노인이 가정과 국가 자원을 소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담이라는 固定觀念에서 벗어나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 女性의 役割과 地位

女性의 役割과 地位는 특정 나라나 지역의 인구 및 경제적 구조변화에 의해 남자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教育機會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은 結婚을 늦게 하고 子女도 적게 갖게 된다. 여성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들이는 기간도 매우 짧아졌다.

농촌에서는 여성이 전통적으로 家事와 農業의 상당 몫을 담당해 왔으나 경제발전으로 고용기회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輕製造業, 서비스업 및 事務職에 많은

여성이 고용되었다. 취학율의 향상으로 남녀 교사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아졌으며, 인구노령화로 또한 많은 수의 保健關聯 人力 (ESCAP지역에서는 주로 여성임) 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성취업과 여성 역할간의 相關關係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여성의 잠재력을 경제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고용에 대한 연구가 많아져야 한다.

○ 都市化와 人口分布

ESCAP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經濟構造의 變化는 2차와 3차 산업의 확대이다. 동시에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인구가 어느정도 농업으로부터 빠져 나오게 되었다. 이같은 변화는 농촌에서 都市로의 人口移動을 수반한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몇몇 나라를 제외한 ESCAP지역이 전체적으로는 경제구조 변화의 初期段階에 머물고 있고 도시거주 인구도 단지 30% 정도이다. 그러나 도시화 속도는 증가될 것으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2005년 이후, 남아시아는 2015년 이후 부터 농촌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²⁾

아시아 전체로는 農村人口가 많기 때문에 도시화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지만 인구 5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여러개가 있어서 1990년에 17개가 있었으나 2000년이 될 무렵에는 4개 도시가 더 추가될 전망이다.³⁾ 사실 2000년경에는 ESCAP지역에는 인구 1억을 넘는 都市圈이 14개가 될 것이다.⁴⁾

대부분 급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같은 규모의 都市圈은 企劃과 行政 면에서 국가 메카니즘과 연결시켜 복합적으로 調整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획과 행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대부분 적절치 않다. 자료는 대체로 도나 군에서 수집한 것으로 그 경계가 도시 경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都市 關聯 資料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 자료를 지역별로 다시 정리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經濟關聯 資料는 지역별로 제표화 되지 않는 것이 다반사여서 도시나 지역별 기획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또한 산업체 분산, 지역개발 및 농촌발전과 같이 농촌-도시 이동을 제한하는 接近

方法에 관해서도 보다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 人口와 環境

아·태 지역이 현재 荒廢化, 森林伐採, 空氣 및 水質汚染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環境毀損의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은 깊은 관심을 갖고 관찰해 왔다. 이같은 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人口問題와 관련되어 있다. ESCAP지역 대부분의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환경 및 자연자원 문제는 주로 사람들의 活動에 의해 야기되며, 때때로 인구증가로 인한 必需的 穀物 栽培 農土 필요성에 의해 나타난다. 게다가 수질 오염, 공기오염, 삼림벌채 및 토양 황폐화도 모두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다.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려는 經濟開發은 資源枯渴, 環境破壞를 가져오는데, 이는 다시 발전, 복지 및 인구추세와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지역에서 당면할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土壤 生態界의 枯渴과 破壞이다. 삼림벌채가 놀라운 비율로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表土와 遺傳의 多樣性を 파괴하고 홍수와 가뭄을 심하게 하며, 호수와 저수지 수면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손상시킨다. 토양 황폐화는 또 다른 문제로서 이지역 수많은 빈민의 삶을 위협한다. 水上環境과 관련 생태계 (예를 들어서 홍수림과 산호)도 나빠지고 있다. 과거 10년동안에 수상환경은 강을 통해 해안으로의 汚染物質 流入, 海邊 觀光의 增進, 바다나 육지로 부터의 기름이나 독성 화학물질의 流出, 해저 자원의 探索 및 利用으로 인해서 훼손되어 왔다.

이와 비슷하게 아·태 지역 바다 환경의 안정성과 생산성도 홍수림과 산호초의 대량 파괴로 인해 훼손되어 왔다. 도시 농촌 모두 결국은 환경오염과 적합한 식수 공급 및 위생시설의 결핍으로 인해 사람 健康을 해치는 일이 늘어가고 있다. 비록 인구가 환경파괴와 자연자원 고갈의 중요한 요인인 것 같으나 不適節한 開發政策이나 産業化 과정에서의 부적합한 기술의 선택과 같은 다른 원인도 환경문제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인구와 환경과의 相關關係는 조심스럽게 연구해야 하며, 그 연구결과를 정책결정자와 계획수립자에게 配布해서 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豫

防과 治療方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家族計劃 事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의 變化

아·태지역 많은 나라에게 1980년대 10년동안은 국가 가족계획사업의 成長과 進歩의 기간이었다. 이 사업은 다른 발전 분야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룬 나라들의 출산력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크게 기여했다. 보다 자세히 보면 삶의 질을 다루는 사회부문사업의 발전(예를 들어서 보건, 교육, 여성지위)과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을 사이에는 높은 相關性을 찾아볼 수 있다.

이같은 높은 상관성은 45차 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기존 가족계획사업의 강화를 위해서는 家族計劃事業의 오리엔테이션이 變化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1990년대의 10년 동안에는 인구성장 감소라는 量的 目標의 重要性을 훼손하지 않은채 인구발전의 質的 측면으로 사업의 중점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기존 가족계획 사업은 보다 관심 범위를 넓혀서 사회 및 가정생활의 여러가지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總體 家族概念(total family concept)”이 다시 강조되어야 한다. 이 개념은 자녀의 발전, 결혼, 가족상담과 여성이 근로자와 엄마로서 2중 역할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유치원과 탁아소를 설립하는 것 등에 대한 관심 증가를 뜻한다. 이 개념은 사업의 변화된 오리엔테이션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또 그만큼 여러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과 관련된 중요 요소중의 하나가 嬰幼兒 死亡率과 高危險 母性死亡率의 저하이다.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이지역 여러나라에서 총 임신의 반정도가 고위험 집단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가족계획을 통한 고위험 임신수의 감소는 이들 나라의 死亡率을 크게 낮추게 된다. 開發途上國에서는 사망의 많은 수가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ESCAP지역 5세 미만 어린이수는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데, 사망은 전체의 80%를 상회한다.

최근 UN의 한 보고서가 家族計劃과 어린이 生存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여기서는 영아사망력이 높은 사회에서는 母乳授乳 勸奨을 포함해서 출산 터울의

장려 정책이 영아사망을 감소 뿐 아니라 가족규모 감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히고 있다⁵⁾. 또한 첫째 출산시기를 늦추고 出産間隔을 증가시키는 일이 인구증가를 둔화에 효과적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몇몇 나라에서만 임신 터울 증진 전략을 개발, 시행한다. 터울조절에 특히 효과적인 먹는 피임약, 주사법, 피부삽입법, 콘돔과 같은 피임법이 보다 쉽게 널리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존 가족계획 사업을 보다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해서 첫번째 임신까지 기간동안 避妊法을 사용하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혼여성의 최소한 70%정도가 20세 이전에 자녀를 갖는다. 이른 임신과 출산은 어린 소녀의 生理的, 知的 發達을 저해하고, 교육과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박탈하며, 따라서 삶의 상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여성이 高危險 妊娠集團을 구성한다.

빠른 도시화와 근대화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로서 婚前 性交에 대한 禁忌는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여기에 결혼연령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남.녀가 결혼을 늦게 할 때 혼전에 性에 露出될 가능성은 더 높는데, 이처럼 성에 露出된 남성과 여성이 피임을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情報의 不足을 든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고 결혼할 부부에 비해 避妊器具를 얻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다. 일찍 엄마가 되는 것의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할 때 결혼한 젊은 사람과 미혼인 젊은이의 성적 욕구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家族計劃事業은 그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집단에 도달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가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꺼린다고 밝힌 바와 같이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家族計劃事業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집단이 있는바, 男子이다. 남자는 가족계획에서 주요 역할을 한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西歐化, 近代化 시기의 일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출산조절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해 왔다. 중요하나 간과되어 왔던 이 사실은 이제 아·태지역 가족계획 사업에서 새로운 주목을 받는다. 그러므로 가족계획 서비스 제공자는 이제 男性對象 事業에 큰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남성들이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 과거보다는 많은 기대를 걸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기존 가족계획사업의 보다 效果的, 效率的 遂行을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나라에서 가족계획사업은 일반 夫婦를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 접근방법은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므로 바뀌어져야 한다. 앞으로는 사업발전에 있어서 지역사회 접근법이 주요 역할을 해야 하는 바, 그 몇가지 이유로서 소가족 규범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潛在的 對象 人口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참여로 地域社會 資源을 활성화시켜 증가하는 자원수요를 완화하고, 최전방 要員의 업무증가를 방지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여러가지 사업의 統合과 調整을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 가족계획 사업은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폭넓고 統合된 패키지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행된다.

앞에서 언급한 아이디어는 모두 “未來 世代를 위한 보다 나은 삶”이란 제목의 암스테르담 선언에 반영되었는데, 이는 21세기 국제 인구포럼에서 채택되었다. 관계자들은 이미 각국이 이 아이디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人口關聯 管理情報體系 (MIS)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사업이 規模와 次元 면에서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서 기존 관리정보체계 (MIS)와 서비스 체계로는 사업계획자와 관리자의 情報欲求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또 적절치 못하다. 생산되는 자료와 정보가 서비스와 사업의 質 향상을 위해 시기적으로 적절히 피드백될 수 있도록 處理, 分析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이유는 상당히 복잡하다. 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원래 정보에 대한 욕구란 매일 매일의 業務와 目標達成 實績을 설명하는 것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욕구는 수요에 부응하는 가족계획 서비스의 적절한 分配의 決定으로 확대된다. 즉, 사업운영을 지도 감독하고 앞으로의 서비스 수요를 기획하여 서비스와 클리닉의 전달, 효율성 측정, 대상범위와 접근성의 관점에서 事業 效果性

결정, 그리고 출산력 변화에 대한 사업 效率性과 效果性 측정이다. 아무리 잘 개발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었다해도 하나의 체계로서 이 모든 欲求를 충족시킬수 없다. 그러므로 여태까지 개발된 것을 단순한 체계의 확장으로서 너무 복잡하고, 그 유지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며, 그리고 시기상으로 알맞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체계에 의해 생산된 情報가 사업 모니터 및 向上에 사용된 적은 거의 없었다.

과거 수년동안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있었으나 사업을 모니터하고 평가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업관리자 및 계획수립자와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制度의 能力사이에는 아직 큰 갭이 있음으로 해서 늘 한계가 있어왔다. 이같은 문제를 가까운 장래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특히 사업구조가 간단하고 수직적이며 서비스 중심 사업에서 家族計劃과 保健事業의 多目的 統合事業으로 옮겨갈 때 특히 그러하다.

ESCAP관계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는 바, 일제히 1970년대 중반부터 事業施行 指標를 開發, 配布하고 각국가가 간단하고 확실한 사업 모니터 체계를 개발하도록 도움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標準化시키는 노력을 해 왔는데, 이같은 노력은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 投入量과 產出量, 效果性, 效率性, 影響力 및 기타 관련 사항은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정의를 標準化함으로써 초기의 노력을 확대시켜야 한다. 기존의 복잡한 기록 및 보고 체계는 簡素化되고 單一化 되어야 한다. 관련 인사는 자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자료수집 및 보고에 관해 敎育 받아야 하며 사업관리에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간단한 分析技術도 배워야 한다. 피드백 체제도 여러 단계에서 정보의 흐름과 활용가능성의 증진을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

서비스 통계 체제로는 단지 제한된 사업수행 모니터만이 가능할 뿐이므로 정기적 出產力/MCH 및 保健實態調查를 통해 사업의 병목 효과를 분석, 정보를 보완해야 함을 잘 인식하고 자료 수집 도구를 개선하고 방법도 간결히 해야할 것이다.

또한 사업의 영향력과 효율성 分析 技術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

○ 人口分野에서의 마이크로 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의 사용도 관련된 문제의 하나로서 인구분야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4가지 분야를 보면, ① 인구학적 分析 ② 調查資料 處理 ③ 家族計劃 評價 ④ 서지 情報管理로서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최근에 ESCAP이 중국, 인도, 라오스,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에서 마이크로 컴퓨터에 관한 워킹그룹을 열었으며, 또한 해마다 各國에서 관계자를 초청해서 국제워킹그룹을 개최하였다. 이들 워킹그룹에서 다룬 주제는 人口學的 技法을 사용한 센서스 자료분석, 소지역별 출산력 산출, 조사자료의 컴퓨터 입력, 출산력 조사분석,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분석, 국가지역별 인구추계, 피임기구 수요추계, 가족 계획사업 서비스 통계분석 및 서지 데이터 베이스 생산 등이었으며,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주제로는 인구조사의 出生歷(birth history) 分析과 1990년경의 센서스 결과의 mapping 技法이다.

마이크로 컴퓨터 사용으로 調查資料 收集과 관련된 문제의 대부분이 해소되어 왔다. 사람들에게 마이크로 컴퓨터 使用法을 가르치기는 매우 쉬우므로 ESCAP은 자료처리 업무자 뿐아니라 자료분석가와 정책수립자에게도 훈련을 시켜왔다. 즉 컴퓨터 경험이 전혀 없는 정책수립자도 자료를 빠르게 직접 분석하는 방법을 쉽게 배울수 있고, 따라서 자료와 정책수립자간의 中間 媒介體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 ESCAP은 앞으로도 이같은 워킹그룹을 계속 열 계획이다.

3. 開發過程에서 情報의 役割

情報은 경제사회발전에 필요한 여러 기둥 중의 하나이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가지 종류의 情報을 요구한다. 人口의 경우 몇몇만 예로 들어보면 정치가,

정부 정책수립자, 결정자, 계획수립자, 사업관리자와 시행자, 연구자, 학자와 학생, 요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결코 중요치 않을 것은 아닌 일반대중, 특히 避妊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다양한 형태의 인구정보 사용자가 누구이건 각각이 特定時期에 特定問題나 關心에 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올바른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개념의 核이다.

여러가지 인구정보는 전체 경제사회 계획수립의 基礎가 되며, 또한 이런 인구정보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구성과 성공적인 인구사업수행에 필수적이다. 情報體系 없이는 국가발전 계획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또한 정확한 資料와 적절한 技術情報 없이는 정책수립이 非效果의이거나 또는 바람직한 정부 目的達成에 逆效果를 내기도 한다. 정보가 이처럼 중요하므로 정보는 전통적인 資源인 토지, 물질, 노동 및 자본과 같이 기본적 資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같은 情報의 重要性 때문에 1969년 ESCAP에 人口部署가 처음 생겼을 때 여러가지 업무중의 하나가 ESCAP지역 국가들이 조직적으로 인구정보를 生産,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活性化 시키는 일이었다. UNFPA가 처음부터 이 활동을 위해 재정적 資源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여러분야의 사용자가 人口情報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ESCAP이 ESCAP지역 각나라와 지역의 각 사용집단에게 직접 情報를 서비스 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 하였다. 지역적 요구와 상황에 알맞는 적절한 人口資料와 情報를 蒐集, 分析 處理해서 특정 사용자 집단에 配布하기 위해서는 매개적 정보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ESCAP의 역할이란 개발도상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바와같이 人口情報 生産, 開發, 交換을 가능케 해주고 더 나가서 인구정보 처리 및 배포에 관한 조언 및 기술과 방법 증진을 통해 이를 더욱더 能率的으로 遂行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 이후에 이지역 개발도상국 정부는 그들 국가사업의 일부로서 여러 情報關聯部署를 신설하기 시작했다. 즉 人口教育 部署, 커뮤니케이션 정보, 교육, 커뮤니케이션 (IEC) 또는 動機 (IEM) 擔當部署, 그리고 국가 인구정보센터로서 각각 그

들 사용자의 정보욕구에 따라 특정기능을 갖는다. 각 부서는 여러종류의 技術專門的 資質과 能力을 가진 훈련된 인력, 물리적 시설 및 장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ESCAP은 개발도상국의 국가 지식베이스 構築, 擴大 그리고 維持를 돕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왜냐하면 이는 인구정책과 인구사업 수립 및 시행에 기초가 되며 또 이를 기초로 인구교육자료와 동기화 캠페인 내용을 결정해야 사용자에게 技術的으로 정확하고 시기적으로 알맞은 정보를 배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人口情報센타와 네트워크

1970년부터 ESCAP은 人口情報資源 베이스 構築, 人口通信員網 형성, 出版事業의 시작, 인구정보회의의 조직, 국가인구정보센타 설립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 그리고 각국 專門要員에 대한 訓練 등의 일들을 시작했다.

ESCAP의 支援을 받는 인구정보센타는 1974년에 처음 문을 열었는데, 현재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의 13개국으로 대부분이 설립당시 UNFPA자금으로 ESCAP의 支援을 받았었다. 1990-1991년 사이에 몇몇 새로운 나라가 이들 국가 네트워크에 參與할 예정이다.

특정 국가의 人口資料와 情報가 質과 量에서 모두 적절히 이용할만 한가 여부는 이들 기관이 자료를 얼마나 잘 蒐集, 處理, 分析해서 이용자에게 配布하는가에 달려있다. 초창기에 이런 기관이 없었을 때는 ESCAP이 정부가 이일을 시작하도록 돕는 觸媒的 역할을 했고, 이후에는 이일을 수행하는 인구정보센터를 계속 支援하고 네트워크의 개발 및 強化를 도와왔다. 또한 국가 센타나 네트워크를 설치할 동안에 이들 국가에 적절한 정보자료와 기술적 도움을 제공했으며 각 센타나 네트워크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訓練도 맡아왔다.

○ 亞·太地域 人口情報 네트워크

처음에 ESCAP이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어느 기관도 그 하나만으로 이 지역 안밖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人口資料와 技術情報를 모두 다루리라고 기대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결국 각 정보센터가 가지고 있는 資源을 풀 (POOL) 해야만 한다.

UN 經濟社會委員會가 1979/33 결의 채택을 통해 세계 인구정보네트워크의 확립을 요구한 데는 이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ESCAP은 현재 아·태 인구정보네트워크의 調整者 역할로서 세계 네트워크의 한 초점 (focal point)으로 기여하고 있다.

각 국가 인구정보센터의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서 情報資源을 풀 (pool)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기회가 생겼다. 1970년대에 도서관과 인구정보센터의 자료 증진을 위해 적극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른 데서 所藏, 利用하고 있는 다양한 文獻이나 技術, 學術雜誌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언어장벽, 높은 서적가격, 외환교환 규제법규들로 인해서 가중된다.

네트워크는 이들 情報源을 풀링 (pooling)하고 인구정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접촉기회를 늘리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특정 기술 傳播의 공통된 문제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技術 專門的 能力이 없다는 점이다. 네트워크 작업을 통해서 경험과 정보자원 베이스를 공유함과 아울러 전문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 이같은 공유의 필요성은 또한 개발도상국의 技術協力 增進을 支援하는 또다른 UN 프로젝트로도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각 개발도상국이 인구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 이외에도 ESCAP을 지역개발센터로서 각국이 서로 다른 나라의 淸요하고 다양한 經驗으로부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情報와 專門技術 資源을 확대시키는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ESCAP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인구정보 활동 수행을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 TCDC(개발도상국 기술협력)가 구성되었다.

4. 人口情報 센타와 네트워크의 現況

각 나라마다 또는 지역마다 人口情報 體系 및 센타의 수준과 당면하고 있는 문제 및 그 해결방안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人力開發의 경우 몇몇 나라는 기본적 정보 관련 업무 訓練이 시급히 요구되는 반면에 다른 나라는 보다 단계 높은 방법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 인구정보센타가 人口情報 使用을 增進하기 위해서 해야할 여러가지 일 중에는 사용자 요구 파악, 사용자에게 적절한 教育 資料 및 情報를 출판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ESCAP은 이들 센타의 情報開發 狀態와 앞으로의 推進計劃 方向을 알아보기 위해서 1981년 부터 정기적으로 아·태지역 도서관과 정보센타에 대한 調查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조사는 組織, 職員, 資源, 施設 및 裝備, 컴퓨터化 狀態, 정보서비스, 出版·刊行物 利用者, 다른 센터와의 네트워크 活動 등이 조사된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정보기술 사용 상태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컴퓨터화 분야에서 처음부터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1981년 조사에서는 어느 나라도 인구정보센타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計劃도 없다고 응답했었고, 1984년 조사에서는 비록 나머지 국가들은 앞으로 3년안에 情報處理 活動에서 어떤 형태든 컴퓨터를 쓰겠다고 했으나 단지 2개국에서만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1988년에는 모든 인구정보센타를 포함해서 100개 도서관과 정보센타가 조사되었는데, 그중 반 정도가 정보처리 업무에 컴퓨터를 활발히 사용하였다. 즉 出版物 發行, 郵便 名單 및 labels, 카타로그 作業 情報檢索과 貯藏, 豫算·企劃, 統計分析 등에 컴퓨터가 쓰였다. 27개 나머지 센타는 앞으로 3년안에 컴퓨터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 必要性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의 49%가 컴퓨터 관련 주제(예를 들어서 자동화, 도서관 관리 및 행정에서의 컴퓨터 응용, 컴퓨터기술,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이용한 출판)를 앞으로 그들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훈련시켜야 할 문제라고 응답한 사실로 보아 認識度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말한 1988년 조사에서는 인구정보 개발 상태에 대한 또다른 評價를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국내 네트워크의 형태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정보센터에 관한 최신 정보를 수집했는데, 10개 센터가 아·태 지역 POPIN과 HELLIS (WHO의 보건관련 도서관 정보체계)와 같은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었고 9개 국가가 세계 POPIN, HELLIS 아·태 지역 POPIN, HELLIS에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

이 조사결과 情報과 資源의 교환이 이들 네트워킹의 주요 활동으로 파악되었으며, 거의 50%의 센터가 국내 다른 조직 또는 국제적으로 UNFPA, ILO, FAO, UNESCO, IFPF, INSDOC, NLM, 인구위원회 (Population Council) 그리고 美 동서센터 인구연구소 등과 機能的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었다.

5. 人口情報의 未來

정보는 龐大하고 소모되지 않는 資源으로 사회 모든 부문과 관계를 맺고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國家發展 過程에서도 필수적이며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인구와 발전에 관한 資源研究에서 부터 인구사업을 통한 인간 삶의 질적 향상에 이르기까지다. 그러나 인구정보를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단지 껍데기 만을 만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1990년대의 10년은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는 人口情報과 資源의 交換 增進으로 특징지워질 것이다.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했기 때문에 수록된 인구정보에 접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자원을 연결시키는 일이 技術的으로 經濟的으로 이미 쉽다. 예를 들어서 발간된 專門的 人口文獻은 현재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의 컴퓨터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다. ESCAP에서나 가능했던 서비스들이 몇몇 개발국 인구정보센터에서는 書誌, 情報貯藏과 檢索을 위한 비약적 기술인 CD-ROM을 통해 가능하다.

컴퓨터 기술의 應用은 컴퓨터 만큼이나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정보의 컴퓨터화는 인구정보의 效果的 生産, 處理 및 配布를 위해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나라는 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메인컴퓨터로의 傳統的 接近法을 건너 뛰어서 보다 힘있고 여유있는 마이크로 컴퓨터에 점차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마이크로 컴퓨터가 문제해결에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나라는 高級 技術情報管理 훈련을 위해 보다 擴張된 人間資源 開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입력단계에서 사용될 어느정도의 標準化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개발과 함께 機能的 뿐 아니라 物理的 連結도 기술적으로 가능케 되었다. 이지역 몇몇 나라에서 電話線을 통한 정보의 전파는 완전히 디지털화되어서 소리, 자료영상, 팩스 등이 한 선을 통해 동시에 전파된다. 일단 이 통합된 서비스 디지털망(ISDN)이 완전히 개발되기만 하면 우리의 意思傳達 方法에 改革이 온다. 우리가 ISDN을 통해 영상, 소리 및 자료 등 여러가지 형태로 동시에 서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映像會議과 共同協力 研究가 증진된다. 이같은 과정은 인구정보 특히 온라인 형태로서의 이용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여러가지 의미를 갖는다.

1988년 조사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情報에의 接近, 그리고 네트워크 활동간의 연결 및 협력을 컴퓨터 응용에 대한 指導 및 訓練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미래의 활동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이해할만하다. 온라인 서비스는 1970년대초에 개도국에 도입된 이후 문헌 찾기에 개혁을 이루었다. 여러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서지 데이터베이스, 서지정보의 마그네틱 테잎 또는 디스크 화일을 재조작해서 직접적인 상호 검색에 응용할 수 있다. 인구와 사회연구를 포함해서 모든 科學에 관한 수천 서지 자료에의 접근이 용이하다. 檢索에 필요한 것은 값싼 터미날 하나와 텔레커뮤니케이션 연결일 뿐이다.

실제 이지역 온라인 체계가 현재는 몇몇 국가에서만 개발되고 있지만 만약에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아마도 人工衛星을 통해서, 설립되어 모든 사용자가 이를 저렴하

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여러 ESCAP지역 개발도상국이 사실 및 本文 정보와 강력한 검색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거대하게 貯藏된 書誌 資料에의 接近可能性도 갖게 되는 바, 이는 가장 최신 技術이 제공할 수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ESCAP은 인구정보를 각 센타에 계속 보내면서 센터들과 네트워크들간의 兩方的 情報交換을 도와왔다. 1981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서비스였으나 컴퓨터화된 현재 알림 서비스-정보의 선택적 배포-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컴퓨터 응용중의 하나이다. ESCAP 書誌情報 體系의 하나인 EBIS/POPFIL과 ESCAP이 존스 홉킨스 대학과 협력하여 1981년에 들여온 POPLINE/SDI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현재 15개국에 매달 평균 219 사용자에게 374 檢索 主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로 사용자는 EBIS/POPFIL 안에 수록된 약 10,000건의 자료와 POPLINE에 수록된 150,000건의 자료가 함께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빠른 최신 情報를 얻을 수 있다. ESCAP이나 또는 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또다른 국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人口書誌와, DEVINSA와 DIALOG로 제공받는 商業 데이터베이스이다.

이와 같은 인구 및 관련 주제에 대한 情報와 知識은 ESCAP 지역 및 다른 지역 도서관, 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화일에 매우 많이 저장되어 있으나, 그러나 이들이 모두 活用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찾는 사람이 정보 中間媒介者(대개는 정보 찾는 사람을 위해 정보를 찾아주는 사서, 컴퓨터 직원)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자 할 경우에 특정분야에 대한 中間매개자의 理解 不足때문에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가 왜곡되는 수가 더러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정보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는 오랜 時間이 걸리므로 현재 서지정보체계 사용은 忌避하려고 할 수도 있다. 또다른 사용을 제한하는 장애로는 단지 參考文獻에의 接近이지 個別的 事實이나 特定 知識에의 接近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러가지 데이터의 인덱스, 코딩 양식 뿐아니라 프로그램 사용언어 및 시스템을 배우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실제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要約과 다른 저장된 資料를 가려내는

데 사용되는 시간은 말할 것도 없다.

현 데이터베이스는 보다 發展된 技術로 質的 交換을 포함해서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참고문헌과 자료검색이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한 사실과 지식 검색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다른 것으로는 정보를 글자와 그래픽 형태로 제공하는 의사전달 체계인 비데오텍스의 사용, 수만페이지 책 전체를 담을 수 있는 비데오디스크, 들고 다닐 수 있는 판독기와 터미날, 데이터베이스들간의 連結을 가능케하는 相互 連結 네트워크, 그리고 문자와 비데오 형태로 전화비용 정도로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는 문헌기록 뿐 아니라 사실, 자료 그리고 내용을 모두 담은 데이터베이스 등이다.

앞으로 10년 동안에도 人口情報 生産物의 1차(책, 잡지, 보고서), 2차(도서실 카타로그, 요약 및 인덱스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및 3차(재포장한) 出版物은 電子技術을 통한 生産(책상 위 출판)과 配布(전자기술을 통한 자료 상호 교환)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情報가 智慧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보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도 없다. 現代技術 덕분에 수십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양 및 속도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의사전달에 있어 人間的 限界는 남게 된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전달된 것을 받는 사람은 항상 개인적 능력면에서 제한이 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도전은 傳達媒介者와 人口情報 使用者를 위해 有用할 것을 선택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발전은 정보 및 관련 서비스에 강조를 두기 보다는 要求를 刺戟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된다.

6. 人口目標 達成을 위한 여러가지 情報

이 글은 주로 記錄(책, 잡지, 신문, 보고서, 회의보고서)을 통한 과학 및 기술정

보 커뮤니케이션 활동인 정보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情報의 受容者는 주로 決定者, 政策決定者, 事業行政家 및 研究者들이다.

인구사업은 다른 형태의 정보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IEC로 대개 국가 인구사업 면에서 가족계획 受容을 증대시킬 목적의 認知 創出과 動機化 활동을 뜻한다. IEC활동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전통 및 매스미디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非專門的 情報를 傳達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쓴다(문자, 비디오, 말, 표현, 기록된 것 및 기록안된 것 등). 현재 IEC는 性과 出産健康 및 安全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가족계획정보 전달과 AIDS예방을 위해 다양한 수용자에게 정보전달 등 여러가지 이유에서 인구사업에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1990년대 10년간 무엇보다도 인구 年齡構造 變化의 效果로 인해서 인구정보 수용자는 매우 다양할 것이다. 몇몇만 예를 들어도 젊은이, 노인, 남자, 여자, 도시 거주자, 농촌거주자, 기혼자, 미혼자 모두가 개별적 요구에 맞게 加工된 특정형태의 정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特定 對象에 맞는 메시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들 수용자의 욕구와 미디어에 관한 研究 및 學習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른 중요한 정보 형태로는 管理情報로서, 이는 사업수행 모니터 보고서와 결산서를 바탕으로 조직내에서 생산된다. 이는 인구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의 주요 방해요인중의 하나가 事實蒐集, 수집된 사실의 組織 및 情報生産 體制가 적절히 개발되지 않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들 정보는 주로 決定, 政策 및 計劃 樹立, 사업수행과 모니터링, 축적된 경험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 및 필수요구를 고려한 運營評價 및 改善등에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구사업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요인은 더이상 周邊的 요소가 아니고 정보/커뮤니케이션 체제는 사업전체에 있어서 지식 생산과 지식 활용체제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核心的 要素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해야할 일은 이들 정보가 모두 유용하도록 技術을 익히는

일이다. 그래서 인구문제 해결과 아·태 지역 수십억의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용가능한 정보를 모두 제한없이 사용한다는 새로운 地平을 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에서의 분석은 정보가 1990년대 인구분야에서 力動的 役割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SCAP은 1990-1991년 회기 동안에 각 정부가 이같은 새로운 관심을 잘 반영해서 포괄적인 政策과 事業을 보다 효과적으로 樹立, 施行토록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활동이 정책수립자나 개발기획자가 國家 次元의 발전과정에서 人口問題가 갖는 意味를 새로운 차원에서 認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Footnotes

1.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88*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88.XIII.7).
2. *Ibid.*
3. *Prospects of World Urbanization 1988*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89.XIII.8), table A-9.
4. Tokyo/Yokohama, Shanghai, Calcutta, Seoul, Osaka/Kobe, Greater Bombay, Beijing, Jakarta, Teheran, Manila/Quezon City, Delhi, Karachi, Bangkok and Dhaka.
5. United Nations, *Family Building by Fate or Design* (ST/ESA/SER.R/74).

勞働人口 成長의 人口學的 및 空間的 考察*

“Demographic and Spacial Aspects of Labor Force Growth”,
Population Research Leads, No. 35, ESCAP, 1990

【目 次】

1. 要約 및 政策的 意味	29
2. 人口와 勞働人口의 關係	31
3. 勞働人口 變化의 政策的 意味	41

* 이 글은 1990년 11월 19-23일 동안 열렸던 ESCAP 인구 및 사회발전 위원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臺灣地區人口變遷之社會經濟因素

謝文耀

"Demographic and Social Aspects of Labor Force Growth"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Vol. 1, No. 1, 1982

頁 1-12

1. 臺灣地區人口變遷之社會經濟因素
2. 臺灣地區人口變遷之社會經濟因素
3. 臺灣地區人口變遷之社會經濟因素

1. 要約 및 政策的 意味

ESCAP지역의 여성 1인당 出産力이 1975-1980년의 4.0에서 1985-1990년의 3.4로 크게 낮아졌지만, 2000년도 아시아 지역의 출산력 및 인구성장 目標은 달성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可妊女性人口比率이 增加하고 있기 때문에 出生率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또 사망율의 감소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1990년 ESCAP지역 인구성장율은 1975-1980년과 거의 같은 1.8수준 그대로 이다.

2000년경에 인구성장율은 약 1.5%가 될 것이다. 그러나 人口成長率이 감소한다 해도 ESCAP국가 인구정책 수립자는 몇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한다. 첫째 인구수는 여전히 크게 증가하는데, 특히 1990-2000년의 10년간 人口數가 가장 많이 增加해서 5억4,800만명이 늘어날 것이다. 둘째, 勞動年齡層으로의 流入人口數는 대략 15년전의 출산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勞動人口 增加率은 일반 인구증가율보다 높고, 따라서 정부는 이들을 위해 적절한 雇傭機會를 創出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이것들은 물론 다른 요인들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사망력과 출산력의 감소는 사회 人口老齡化를 낳는다. 또한 앞으로 20년동안 都市化率도 급격히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 도시화 속도의 가속화는 도시인구 성장의 증가보다는 농촌인구 성장의 감소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인구의 産業構造도 농촌에서 산업 및 서비스 쪽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한 나라의 經濟發展 水準과 性格은 人口學的 構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정책적 의미도 나라마다 다르다. 인구성장율이 높고 대다수 국민이 農村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나라에 적합할 것으로 간주되는 政策提案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성장율이 낮고 인구가 대부분 都市에 살면서 農業外 部門에 종사하는 나라에 적합한 정책적 대안이 있다. ESCAP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두가지 狀況 가운데의 變遷段階에 있으나, 변천과정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므로 장기

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初期 變遷段階에 있는 나라들은 인구 비율이 큰 농촌인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農村과 農業 發展을 강조해야 한다. 농업과 산업전략 모두 노동 집약적 생산을 강조해야 하며 또한 인구성장율, 부양부담 및 농촌-도시 인구이동의 압박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지원 가족계획사업에 높은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ESCAP 지역 대부분의 나라들은 빠른 變化를 겪고 있으므로 보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ESCAP 지역은 勞働人口 成長率이 人口 成長率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雇傭 創出 政策에 최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고용창출이 都市地域에서 이루어져야 함도 인식해야 한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동안 ESCAP지역 전체 노동인구 증가율은 단지 1.5%가 될 것인 반면에 도시 노동인구 성장율은 3.0%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 10년 동안 새로 생기는 직업은 60%가 도시에서 생기게 될 것이며, 그다음 10년동안은 그 비율이 96% 정도가 될 전망이다.

女性을 위한 雇傭 創出 政策도 과거보다 더 중요해진다. 급격히 증가한 製造業, 貿易業과 서비스 부문에는 주로 여성들이 취업하게 된다. 여성노동자는 특히 이들이 이미 纖維, 電子와 같은 輕製造業과 食品加工業에 많이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輸出 위주의 製造業으로 발전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같이 근대화된 고용부문에 여성을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敎育과 訓練機會를 마련해야 한다. 여성 敎育 및 취업기회의 증가는 늦은 結婚과 낮은 出産力을 유도함으로써 발전을 증진시킨다.

농촌 노동인구가 곧 증가를 멈출 것이란 사실이 고용창출 정책이 필요치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農業도 보다 商業化되고 技術的이 되어야 한다. 발전 정책은 이런 변화를 유도하고 보다 나은 農村敎育과 職業訓練을 통해 농업 노동인구의 資質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인구 성장율이 낮아짐에 따라 몇몇 부문과 특정 職種에서 나타났던 초기 노동공급부족 현상은 사라지고 점차로 賃金이 오르게 될 것이다. 초기 勞働不足時

雇傭主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技術을 택하게 된다. 노동인구 증가가 완화되고 또한 노동자 연령이 높아질 때 새로운 기술이 채택됨에 따라 勞動者 再教育이 과거보다 훨씬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노동인구가 비교적 젊어서 이들에게 주는 賃金負擔이 적을 동안에 年金制度를 확립시켜야 한다. 앞으로 노동인구 성장이 늦어지고 경제가 계속 확대되면 停年 退職 年齡도 늦출 필요가 있다. 노동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몇몇 나라는 임시방편으로 勞動力 輸入을 허용하기도 할 것이며 또 보다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에 투자를 하기도 할 것이다. ESCAP지역은 특히 建設과 같은 특정분야에서 어느정도 統合된 勞動力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지역 국가들은 국가간의 經濟的 相互 依存 關係를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人口와 勞動人口의 關係

○ 勞動人口 規模와 成長率

1981년 인구 및 발전에 관한 아시아 議員聯盟 總會에서 인구와 발전에 관한 北京宣言을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은 2000년까지 아시아지역의 인구성장률 1% 달성을 목표로 하였다.

그 이듬해에 열린 제 3차 아.태지역 인구총회에서는 인구와 발전에 관한 아.태지역 行動綱領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서는 2000년까지 출산력의 人口代替 水準의 성취로 그 목표를 약간 낮추었다.

목표를 설정했던 기간이 반이 지난 1990년 시점에서 볼 때 그 목표가 달성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ESCAP지역의 여성 평균 출산력은 상당수준 감소되어서 1975-1980년간 合計 出產力이 4.0이던 것이 1985-1990년에는 3.4로 떨어졌다.¹⁾ 그러나 가임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또 사망률 감소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1990년의 人口成長率은 1975-1980년간의 년

상장율인 1.8수준과 거의 같다.

UN의 최근 中位推計 結果에 의하면 2000년의 인구성장율은 1.5%이고 순 재생산율은 약 1.2가 될 것이다(대체출산력 수준은 1.0)²⁾

인구성장율이 감소한다고 해도 ESCAP지역 人口政策 樹立者들은 몇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한다. 첫째 人口數는 여전히 크게 증가하는데 1990-2000년의 10년간 인구수가 가장 많이 증가해서 5억4,800만명이 늘어날 것이다.

둘째, 勞動年齡層으로의 流入人口數는 대략 15년전의 출산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노동인구 증가율은 일반 인구증가율보다 높고, 따라서 정부는 이들을 위해 적절한 雇傭機會를 創出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새로 개정된 노동인구추계를 아직 UN에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 낙관적인 종전의 인구 및 勞動人口 推計值를 표1에 제시하였다. 옛날 자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 파악에 도움을 준다.

1980-1990년간 노동인구 증가율은 전체 인구증가율보다 0.5%포인트가 높았다(표1). 출산력 감소가 늦으면 늦을수록 두 비율간의 隔差는 오래 지속할 것이다. 출산력이 급격히 감소되었던 동아시아의 경우 1980-1990년동안 노동인구 성장율이 인구성장율보다 0.9%포인트가 높았으나 1990년 이후에는 두 비율이 거의 같아졌다. 동아시아는 출산력이 보다 완만한 감소를 보인 바, 1980년 부터 2010년까지 勞動人口 增加率은 0.4%포인트 정도 높게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남아시아는 출산력 감소가 매우 느리므로 노동인구 증가율은 1990년까지는 인구증가율을 넘지 않을 것이며 2000년이 지나서야 0.4% 포인트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베트남은 勞動人口의 人口學的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특이하다. 1979년과 1989년 인구센서스 사이에 연 인구증가율은 2.1%이나 15세 이상 인구증가율은 2.7%가 되어서 그 결과로 노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났고, 따라서 1989년도 失業率은 매우 높았다. 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실업율은 5.8% 였는데, 특히 都市地域은 13.2%이고 13-24세 젊은 연령층의 경우 13.4%를 나타냈다.³⁾

Table 1. Total an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growth rates of ESCAP region and subregions, 1970-2010

<i>Subregion</i>	<i>1970</i>	<i>1980</i>	<i>1990</i>	<i>2000</i>	<i>2010</i>
Total population in millions					
ESCAP	2,032	2,490	2,930	3,383	3,772
East Asia	972	1,158	1,301	1,447	1,555
South-east Asia	287	360	438	519	592
South Asia	754	949	1,165	1,387	1,592
Pacific	19	23	26	30	33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millions					
ESCAP	908	1,125	1,392	1,622	1,819
East Asia	495	622	765	853	903
South-east Asia	119	149	189	233	276
South Asia	286	344	426	522	624
Pacific	8	10	12	14	16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total population (%)					
	1970-1980	1980-1990	1990-2000	2000-2010	
ESCAP	2.03	1.63	1.44	1.09	
East Asia	1.75	1.17	1.06	0.72	
South-east Asia	2.27	1.97	1.68	1.33	
South Asia	2.29	2.05	1.75	1.38	
Pacific	1.67	1.47	1.27	1.05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					
ESCAP	2.14	2.13	1.53	1.15	
East Asia	2.28	2.07	1.09	0.58	
South-east Asia	2.27	2.37	2.07	1.73	
South Asia	1.85	2.15	2.03	1.77	
Pacific	2.21	1.76	1.36	1.09	

Note: Figures for the Pacific include the population of islands which are not members of ESCAP.

Source: *World Demographic Estimates and Projections, 1950-2025* (United Nations publication, ST/ESA/SER.R/79, New York, 1988).

○ 勞働人口의 年齡과 性別 構造

출산율과 사망율의 감소는 사회의 人口老齡化를 낳는다. 처음에는 낮은 출산력이 젊은 인구의 부양부담을 줄임으로써 發展에 惠澤을 준다. 자녀양육 및 교육 비용이 줄어들음에 따라 사회나 가정은 貯蓄이나 生産投資 액수를 늘릴 수 있다. 젊고 최근에 교육받은 일꾼이 많아짐으로 生産性을 자극하고 또한 住宅이나 消費

Table 2. Percentage distribution by age group of the population of the ESCAP region and subregions, 1980, 1990 and 2000

Subregion and age group (Years)	1980		1990		2000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ESCA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37.6	37.1	31.6	31.1	28.8	28.5
15-39	39.7	39.2	44.0	43.3	43.0	42.2
40-64	18.7	18.8	19.8	19.9	22.6	22.7
65+	4.0	4.9	4.7	5.6	5.6	6.7
East Asia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34.4	34.0	25.2	24.8	23.7	23.4
15-39	40.8	39.8	46.5	45.9	42.8	42.0
40-64	20.5	20.3	22.7	22.1	26.4	26.0
65+	4.4	5.9	5.6	7.2	7.1	8.6
South-east Asia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41.6	40.0	36.6	35.2	32.5	31.2
15-39	39.2	39.3	43.3	42.8	44.0	43.2
40-64	16.0	16.9	16.6	17.8	19.3	20.5
65+	3.2	3.8	3.5	4.2	4.1	5.1
South Asia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40.2	40.1	36.9	36.8	32.9	32.8
15-39	38.7	38.4	41.5	40.8	42.9	42.2
40-64	17.4	17.6	17.6	18.1	19.7	19.9
65+	3.8	3.9	4.0	4.3	4.6	5.1
Pacific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29.9	28.7	27.3	26.1	26.1	25.0
15-39	40.2	39.2	41.0	39.6	39.3	27.7
40-64	23.1	22.9	24.1	23.9	26.5	26.7
65+	6.8	9.3	7.7	10.3	8.1	10.7

Note: Figures for the Pacific include the population of islands which are not members of ESCAP.

Source: World Demographic Estimates and Projections, 1950-2025 (United Nations publication, ST/ESA/SER/R/79, New York, 1988).

財 消耗를 창출한다.

ESCAP지역은 최근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年齡構造를 향유한다. 1980년과 1990년 사이에 15세 미만 인구비율은 37%에서 31%로 떨어졌다. 연령 구조의 가장 큰 변화는 15-39세 젊은 勞動 年齡層으로의 流入이다. 이 집단은 1990년에 거의 44%에 달하였고 앞으로는 천천히 감소될 전망이다. 1990년 이후에는 인구노령화가 가속화되어 40-64세 및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出産力이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年齡構造의 變化도 이 지역이 가장 두드러진다. 1990년에 인구의 약 46%가 젊은 노동인구 집단에 속했다. 그러나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15-39세 인구집단은 4% 포인트 가량이 감소하는 반면에 40-64세 연령층은 그만큼 증가될 전망이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연령층은 65세 이상의 노인층이다.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는 동아시아보다는 출산력과 사망력 감소 속도가 緩慢했기 때문에 연령구조의 변화도 보다 서서히 나타났다. 두지역 모두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15-39세 인구비율이 증가할 것이나 人口數에서는 40-64세 인구의 증가수가 더 클 것이다. 이들 지역 2000년의 65세 이상 人口比率은 동아시아 1980년의 65세 이상 인구비율보다 낮을 전망이다.

UN의 추계에 의하면 아시아지역의 女性 勞働人口 比率은 앞으로 20년간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나 특정 부문별 변화는 분명해서 농업여성 노동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非農業部門 노동인구중 女性比率은 增加할 전망이다. 선진 경제는 여성에게 敎育과 雇傭機會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들은 남자보다 빠르게 農業(대개가 무보수 가정노동자)을 떠나 産業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된다.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ESCAP 비가입국 포함) 농업노동자중 여성 비율이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38.2%에서 35.4%로 감소할 것이나 非農業 雇傭部門에서는 31.3%에서 32.9%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같은 경향은 특히 남아시아에서 두드러지는 바, 농업 고용의 여성비율은 앞으로 20년동안 25.0%에서 21.7%로 떨어질 것으로 추계된 반면에 비농업 부문에서는 18.0%에서 20.5%로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⁴⁾

○ 都市 勞働人口 規模와 成長

과거 20년동안 ESCAP지역의 都市化 속도는 빠르지 않아서 도시지역 거주인구 비율이 1970년 23.5%에서 1990년 28.8%로 증가하였으나 앞으로 20년동안은 도시화 추세가 급격히 加速化 되어서 도시인구 비율이 2000년에 33.6%, 2010년에

40.4%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니로니칼하게도 都市化 速度의 加速化는 도시인구 성장율의 증가보다는 농촌인구 성장율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1970년부터 1990년 사이에 ESCAP지역 農村人口는 연 1.5%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도시인구는 2.8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1990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에는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는 상황속에서 都市成長率은 2.96%로 약간 증가될 것이나 농촌인구 증가율은 0.4%로 크게 떨어질 것이며, 특히 都市化 比率은 동남 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표3은 각 지역마다 도시, 농촌 인구비율과 같은 비율로 勞働人口가 都市와 農村에 分布되어 있다는 假定에서 도시 노동인구 규모를 산출, 제시한 것이다. 앞의 표1에서는 1970년과 2010년 사이에는 노동인구 성장율이 인구성장율을 능가함을 알아 보았는데, 표 3은 都市 勞働人口 成長率이 훨씬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ESCAP 지역은 1970-1990년 사이에 도시 노동인구는 연 약 3.0%의 증가를 보인 반면에 전체 노동인구 증가율은 연 2.1%를 나타냈다. 1990년 이후에는 도시 노동인구 성장율은 그대로 3.0%선에 머무를 것이나 전체 노동인구는 1990-2000년에 연 1.5%, 그리고 그후 10년동안에는 1.2%로 떨어질 전망이다. 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ESCAP지역은 1990-2000사이에 도시 노동인구 성장율이 전체 노동인구 성장율의 2배 정도가 될 것이다.

ESCAP지역이 도시화되어감에 따라서 전체 노동인구 증가중 都市가 차지하는 비율도 커질 것으로, 1980년과 1990년 사이에 전체 노동인구 증가의 40%가 도시에서 증가할 것이고, 1999년과 2000년 사이에는 그 비율이 61%로 증가할 것인데, ESCAP지역 전반에 걸쳐 소지역별로도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2000-2010년에는 도시 노동인구가 전체 노동인구의 96%에 이를 것이나, 이것은 平均으로 각 소지역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의 農村 勞働人口는 2000년 이후부터 그 絕對數가 減少될 것으로 추계되었고, 따라서 증가된 都市 勞働人口數가 全體 勞働人口 增加數보다 많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의 노동인구의 증가가 대부분 도시지역에서의 증가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촌 노동인구도 계속 증가

Table 3. Size and growth of the urban labour force in the ESCAP region and subregions, 1970-2010

Subregion	1970	1980	1990	2000	2010
Percentage urban					
ESCAP	23.5	25.8	28.8	33.6	40.4
East Asia	26.6	27.6	28.8	32.0	38.0
South-east Asia	20.2	24.0	29.0	35.5	43.2
South Asia	19.5	23.2	27.6	33.6	40.9
Pacific	70.8	71.4	70.9	71.4	72.7
Urban labour force in millions					
ESCAP	217	294	401	541	729
East Asia	132	172	220	273	343
South-east Asia	24	36	55	83	119
South Asia	56	80	118	175	255
Pacific	6	7	9	10	12
	1970-1980	1980-1990	1990-2000	2000-2010	
Growth rate of urban labour force (per cent)					
ESCAP	3.04	3.10	2.99	2.98	
East Asia	2.65	2.49	2.14	2.29	
South-east Asia	3.97	4.27	4.12	3.66	
South Asia	3.58	3.87	4.00	3.75	
Pacific	2.32	1.75	1.61	1.52	
Increment in urban labour force as percentage of increment in total labour force					
ESCAP	36	40	61	96	
East Asia	31	34	60	140	
South-east Asia	39	48	63	85	
South Asia	41	46	60	78	
Pacific	74	68	74	82	

Note: Figures for the Pacific include the population of islands which are not members of ESCAP.

Source: *World Demographic Estimates and Projections, 1950-2025* (United Nations publication, ST/ESA/SER/R/79, New York, 1988).

할 것이고 또 농촌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어도 직업과 기술구성 면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農村 雇傭 增進 政策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 勞働人口의 産業構造 變化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노동인구의 産業別 構造도 농업에서 산업 및 서비스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ESCAP지역 국가에서 이런 형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Table 4. Malaysia, percentage distribution of employed persons by industry, 1980, 1985 and 1990

Industry	1980	1985	1990	Average annual growth rate (%)	
				1980-85	1985-90
Total	100.0	100.0	100.0	2.6	2.3
Agriculture, forestry, hunting and fishing	39.7	35.7	32.7	0.4	0.5
Mining and quarrying	1.7	1.1	0.7	-5.5	-7.7
Manufacturing	15.7	15.1	15.4	1.9	2.6
Electricity, gas and water	0.6	0.7	0.8	5.2	2.9
Construction	5.6	6.9	7.8	7.0	2.9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staurants and hotels	14.0	15.5	17.1	4.6	4.3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	4.3	4.9	5.3	4.8	4.3
Finance, insurance,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1.6	1.9	2.0	5.3	3.5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16.8	18.2	18.2	4.2	2.3

Source: Lim Lin Lean, "Labour markets, labour flows and structural change in Peninsular Malaysia" in Pang Eng Fong (ed.), *Labour Market Development and Structural Change: The Experience of ASEAN and Austria*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1988).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의 경우 農業從事 人口比率이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39.7%에서 32.7%로 감소하였는데(표4), 대부분의 노동인구 구조의 변화는 산업 부문보다는 서비스 부문으로의 변화이다. 1980년부터 1990년 사이에 서비스(모든 부문) 종사 노동인구 비율은 36.7%에서 42.6%로 증가한 반면에 산업(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종사 인구비율은 단지 23.6%에서 24.7%로 약간 증가했다.

파키스탄은 비록 말레이시아보다 經濟發展 수준이 낮기는 해도 1973년부터 1984/85년간 노동인구 구조의 변화는 급격했다(표5). 농업의 비율은 59.2%에서 50.9%로 떨어졌는데, 파키스탄은 이들 변화의 대부분이 產業發展에 의한 勞動力의 移動이다. 1979년부터 1984/85년까지의 서비스 종사 인력 비율은 26.8%에서

Table 5. Pakistan, percentage distribution of employed persons by industry, 1973, 1981 and 1984/85

Industry	1973	1981	1984/85
Total	100.0	100.0	100.0
Agriculture, forestry, hunting and fishing	59.2	55.5	50.9
Mining and quarrying	1.0	0.4	0.2
Manufacturing	8.4	9.6	13.8
Electricity, gas and water	0.1	0.6	0.7
Construction	4.6	4.4	5.6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staurants and hotels	9.3	9.9	11.6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	4.0	4.4	5.2
Finance, insurance,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0.7	0.8	0.9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12.8	14.4	11.1

Sources: Pakistan, Population Census Organisation, *Housing, Economic and Demographic Survey-1973*, vol. 2, part 1, Statistical Tables, Pakistan (Islamabad); *1981 Census report of Pakistan* (Islamabad, December 1984); International Labour Office,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88* (Geneva, 1988), table 2A.

28.8%로 증가한 반면에 산업체 종사 인력 비율은 14.1%에서 20.3%로 크게 증가했다.

ESCAP지역 社會指標가 잘 나타내 주는 바와 같이 농업에의 종사인력 비율은 일본 8.3%에서 중국과 태국 74%에 이르기까지 國家에 따라 差異가 크다. 아시아 지역 평균은 아마도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는 높지 않은 60%정도인데, 그러나 이 통계치는 조사나 센서스에서 농촌 가정에서 無報酬로 일하는 많은 女性 勞動者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낮게 잡힌 것이다. 농업지율이 가장 높은 태국과 중국이 노동인구의 여성비율(Feminity Ratios : 남성 100명당 여성수)도 가장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FR은 태국이 94, 중국이 78이다. 인도와 버마는 각각 노동인구의 69%, 68%가 농업에 종사한다.

여러나라가 50-60%의 農業 人口比率을 나타내고 있는 바, 방글라데시(59%), 인도네시아(55%), 파키스탄(51%), 스리랑카(51%) 등이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

탄도 FR이 각각 1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낮게 잡혔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필리핀의 경우는 노동력의 48%가 農業部門에 종사하며 한국은 22%이다.⁵⁾

○ 勞動人口 職業構造의 變化

경제발전 과정을 따르다 보면 노동인구의 職業構造가 바뀌게 된다.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각기 다른 직업종사 비율은 증가하게 되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專門職, 技術職 및 技術關聯 職業, 行政. 管理職이다. 그러나 표6에 나타난 통계치와 같이 그 과정이 늘 일정하거나 굴곡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1980년과 1985년 사이에 기술직, 행정.관리직, 경리 및 판매업 종사자는 모두 늘어났다. 그러나 생산 관련 노동자 및 서비스 노동인구 비율은 줄어들어서

Table 6. Percentage distribution of the employed population by occupation,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selected years

Occupation	Indonesia		Philippines			
	1980	1985	1976 3rd quar.	1978 3rd quar.	1984 3rd quar.	1987 4th quar.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rofessional technical and related workers	3.0	3.5	6.3	6.1	5.8	5.6
Administrative and managerial workers	0.1	0.2	1.2	1.0	0.9	0.9
Clerical workers	3.5	3.9	4.2	4.4	4.1	4.3
Sales workers	13.1	14.9	9.1	10.1	12.3	13.3
Agricultural, forestry workers hunters and fishermen	56.7	55.3	52.3	52.0	49.4	47.4
Production and related workers	19.3	18.5	19.2	18.8	19.5	20.0
Service workers	4.4	3.7	7.6	7.6	7.8	8.6

Source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88* (Geneva, 1988), table 2B; and Rosa Linda P. Tidalgo, "Labour markets, labour flows and structural change in the Philippines, in Pang Eng Fong, ed., *Labour Market Developments and Structural Change: The Experience of ASEAN and Australia*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1988).

이 증가가 모두 농업종사자로부터 온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말레이시아도 같은 기간에(표4) 生産勞働者 比率의 減少와 製造業部分 종사자 비율의 감소가 並行했음이 특기할 만하며 이는 1983년을 중심으로한 전반적 경기후퇴를 반영한다.

필리핀의 년도별 자료(표6)가 느린 經濟成長(때로는 마이너스 성장)時代를 반영한다. 1976년부터 1987년까지 11년동안 농업 노동인구 비율은 아주 조금 증가했다. 기술직과 행정관리직, 경리직은 변화가 없던 반면에 감소된 농업인구 비율의 대부분이 販賣業勞働者로 흡수되었던 것이다.

3. 勞働人口 變化의 政策的 意味

한 나라의 經濟發展 水準과 性格은 人口學的 構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정책적 의미도 나라마다 다르다. 인구성장율이 높고 대다수 국민이 農村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나라에 적합할 것으로 평가되는 政策的 提案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성장율이 낮고 인구가 대부분 都市에 살면서 農業外 部門에 종사하는 나라에 적합한 정책적 대안이 있다. ESCAP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두가지 상황 가운데의 變遷段階에 있으나, 變遷過程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므로 長期的 計劃을 수립해야한다.

태국의 예가 이같은 人口學的 및 經濟的 變化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준다. 1970년에 태국인구는 3,570만인데 그중 470만이 都市에 살았었으나 1990년에는 전체 인구가 5,570만으로 늘고 도시인구는 2배이상인 1,260만으로 증가하였다. 1965-1970에 인구성장율은 3.1%였고 TFR은 여성 1명당 6.1에 해당했었으나 20년 뒤에는 성장율은 1.5%, TFR 2.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農業 勞働人口 比率도 1970년 80에서 1990년에는 64로 감소하였다. UN 추계결과에 의하면 2000년 이후에는 농업 노동인구수의 絶對 크기가 減少하기 시작할 것이다.

初期 變遷段階에 있는 나라들은 인구 비율이 큰 農村人口에게 惠澤을 주기 위해

서 農村과 農業 發展을 강조해야 한다. 농업과 산업전락 모두 노동 집약적 생산을 강조해야 하며 또한 人口成長率, 扶養負擔 및 農村-都市 人口移動의 압박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지원 家族計劃事業에 높은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ESCAP 지역 대부분의 나라들은 빠른 變化를 겪고 있으므로 보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ESCAP 지역은 勞動人口 成長率이 인구 성장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雇傭 創出 政策에 최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雇傭 創出이 都市地域에서 이루어져야 함도 인식해야 한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동안 ESCAP지역 전체 노동인구 증가율은 단지 1.5% 가 될 것인 반면에 도시 노동인구 성장율은 3.0%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 10년 동안 새로 생기는 직업은 60%가 도시에서 생기게 될 것이며, 그다음 10년동안은 그 비율이 96%정도가 될 전망이다.

여성을 위한 雇傭 創出 政策도 과거보다 더 중요해진다. 급격히 증가한 貿易業과 서비스 부문에는 주로 여성들이 취업하게 된다. 여성노동자는 특히 이들이 이미 纖維, 前者와 같은 輕製造業과 食品加工業에 많이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위주의 製造業으로 發展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같이 근대화된 고용부문에 여성을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教育과 訓練機會를 마련해야 한다. 女性 教育 및 就業機會의 增加는 늦은 결혼과 낮은 출산력을 유도함으로써 發展을 增進시킨다.

농촌 노동인구가 곧 증가를 멈출 것이란 사실이 雇傭 創出 政策이 필요치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농업도 보다 商業化되고 技術的이 되어야 한다. 발전 정책은 이런 변화를 유도하고 보다 나은 農村教育과 職業訓練을 통해 농업 노동인구의 資質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인구 성장율이 낮아짐에 따라 몇몇 부문과 특정 職種에서 나타났던 초기 勞動供給不足 현상은 사라지고 점차로 賃金이 오르게 될 것이다. 初期 勞動不足時 고용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技術을 택하게 된다. 노동인구 증가가 緩和되고 또한 노동자 연령이 높아질 때 새로운 기술이 채택됨에 따라 勞働者

再教育이 과거보다 훨씬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노동인구가 비교적 젊어서 이들에게 주는 賃金負擔이 적을 동안에 年金制度를 확립시켜야 한다. 앞으로 노동인구 성장이 늦어지고 경제가 계속 확대되면 停年 退職 年齡도 늦출 필요가 있다. 노동인구의 絕對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몇몇 나라는 임시 방편으로 勞動力 輸入을 허용하기도 할 것이며 또 보다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에 투자 하기도 할 것이다. ESCAP지역은 특히 建設과 같은 특정분야에서 어느정도 統合된 勞動力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지역 국가들은 국가간의 經濟的 相互 依存 關係를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Footnotes

- 1/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88*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88.XIII.7), pp. 266-267.
- 2/ *Ibid.*
- 3/ Viet Nam, Central Census Steering Committee, *Vietnam Population Census -- 1989, Sample Results* (Hanoi, 1990), table 3.1.
- 4/ *World Demographic Estimates and Projections, 1950-2025* (United Nations publication, ST/ESA/SER.R/79, New York, 1988), pp. 44-55.
- 5/ International Labour Office,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88* (Geneva, 1988), table 2A.

亞·太地域 人口現況斗 人口政策*

“Population Situ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in Asia and the Pacific”, Population Research Leads, No. 36, ESCAP, 1990.

【目 次】

1. 要約 및 政策的 意味	47
2. 人口規模와 人口成長	49
3. 出産力	52
4. 死亡力	54
5. 人口移動과 都市化	60
6. 年齡構造 變化의 여러 側面	63
7. 結論	67

* 이 글은 1990년 11월 19-23일 동안 열렸던 인구 및 사회발전 위원회에서 ESCAP이 발표된 논문을 수정, 요약한 것이다.

1. 要約 및 政策的 意味

이 글은 아·태 지역 人口에 관한 것으로서 인구규모 및 성장, 출산력, 사망력, 인구이동, 도시화 및 인구구조 변화의 여러가지 모습 등을 다루고 있다.

ESCAP지역 인구는 1980-1985년간 年평균 1.79%의 증가율로 매년 4,454만명 씩 인구가 증가되어 왔다. 이 증가율은 1990-1995년에 1.78%로 감소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비록 비율은 감소한다고 해도 연간 증가 인구수는 4,454만에서 5,311만으로 증가될 것이다.

현재 出産力 추계에 의하면 ESCAP지역 TFR은 3.3이다. 그러나 이는 출산력 대체 수준에 도달한 선진국 人口成長率인 TFR 2.0에 비교하면 거의 2배이다. ESCAP지역 출산수준은 1970-1975년간과 1980-1985년간 사이에 31%가 감소하였으나 지역별로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여러가지 出産減少 요인중에서도 특히 結婚年齡의 上昇과 조직화된 FP事業이 가장 큰 이유이다. 지역 전체로서는 출산력이 매우 인상적일 만큼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특히 남아시아의 경우는 TFR이 4-7에 이르는 高出産 國家가 많다. 앞으로의 출산감소 요인으로서 결혼 연령의 상승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나 평균 결혼연령이 아직 20세인 이들 남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많은 여지를 남기고 있다.

ESCAP지역의 死亡力은 과거 30-40년간 감소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20C말경에는 비록 지역 및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겠으나 사망율(CDR)은 평균 7.8정도가 될 것이다.

국내이동과 도시화 같은 인구의 空間 分布는 국가 발전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都市化 증가 추세는 20C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 같고, 국제이동 또한 歸還하는 勞動 移動者를 再 安住시킨다는 맥락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大都市의 規模와 成長도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다. 1985년에는 ESCAP지역에 인구 1억이상의 대도시가 5개 었으나 2000년경에는 9개가 더 추가될 것이고 인구

500만 이상의 도시는 24개나 될 전망이다.

ESCAP지역 대부분의 국가는 人口分布를 變化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인구정책을 통해 현재 인구분포를 바꾸거나 또는 人口集中 현상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인구의 年齡分布는 과거 死亡率과 出生率에 달려있다. 또한 국제이동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 지역에서는 주로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만 제한되는 일이다. 자녀터울에 대한 사람들의 決定도 年齡構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 결정요인은 사망력이나 출산력 결정요인과 같이 잘 알려져 있지않다.

출산력 감소는 특히 인구의 嬰幼兒 比率 減少와 人口老齡化를 낳는다. 그러나 사망력 감소 영향력은 이처럼 명확하지 않다. 초반에는 영유아 사망력 감소가 어린이 인구비율을 증가시키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出生力과 死亡力 減少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노령 인구비율을 증가시키며 人口成長에 어떤 “계기”를 가져온다. 이와같은 변화하는 인구구조의 주요한 측면은 아래에 언급된 바 출산율 감소, 인구 노령화, 노동력 성장 속도 하락 잠재력 등이다.

또한 앞으로의 出生力 減少는 과거 십년과 같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전체 人口成長은 가임연령 여성, 노동력, 부양인구수 및 비율과 마찬가지로 年齡構造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들 인구집단의 절대크기 변화는 事業에 중요한 意味를 함유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中國의 가임여성 인구수는 1990년 3억 1200만에서 2000년에 3억 4,500만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0-4세 인구수는 印度 및 中國에서 각각 1억이 넘는다. 그러므로 있을지도 모를 베이비 붐을 막고 더 나가서 인구증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既存 家族計劃事業을 量 및 質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20세기 말까지는 勞動力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므로 人力과 經濟 전반에 걸쳐 이를 고려한 長期 計劃이 수립되어야 한다. 연령구조의 변화는 또한 消費樣相의 變化(저축 및 투자)를 뜻한다. 그러므로 생산, 소비, 투자 및 분배 계획에 이 年齡構造 變化가 반영되어야 한다.

출생시 期待壽命도 세계의 선진국의 기대수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있다. 따라서 대부분 나라가 사망력 조건을 보다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런 개선은 人口學的으로 뿐아니라 社會的으로도 매우 바람직하다. 점진적인 産業化와 都市化 과정에서 사망양상도 바뀌고 있다. 사망력 분석 자료의 결핍은 매우 중요한 제한점이다. 따라서 질적으로 믿을만한 충분한 死亡力 資料가 생산되어야 한다. ESCAP지역 여러나라가 도시성장 속도를 늦추는 정책을 채택해 왔는데, 그 접근방법으로 農村開發, 産業體 再配置, 衛星都市 만들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사용된 전략은 대체로 비효과적이거나 시행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서 費用-效果는 의문이다.

2. 人口規模와 人口成長

전세계 인구는 1987년에 50억에 이른 것으로 推計되었는데, 그 중에서 28억이 ESCAP지역 인구였다. 아-태 지역의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약 56% 정도로서 1990년에 29억 8천만, 2000년에 35억 4천만명이 될 것으로 추계되는데, 특히 동아시아(1990년 13억 1천만)와 남아시아(1990년 12억)에 집중될 것이다. 地域別 國家別 人口推計 結果는 표1과 같다.

ESCAP지역 인구는 1980-1985년 동안 年평균 1.79% 成長率을 보여서 매년 4,454만명씩 증가되어 왔는데, 1990-1995년 동안에는 1.78%로 감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비록 인구증가율은 떨어진다고 해도 실제로 증가하는 年평균 人口數는 10년동안에 4,454만에서 5,311만으로 늘어날 것이다.

표2는 지역별 국가별 人口規模의 년 변화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를 자세히 보면 1980-1985년 동안의 평균 비율이 동아시아와 남동아시아가 비록 이란 4.0%, 스리랑카 1.67%로 같은 지역내 국가간에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크게 소지역 별로는 각각 2.40%, 2.18%로 유사한 變化를 보이고 있다.

Table 1. Total population by subregion and country or area

(Thousands)

	1980	1990	2000	2020
ESCAP	2 488 123	2 983 997	3 542 520	4 437 723
EAST ASIA	1 157 767	1 313 354	1 483 236	1 667 992
China	996 134	1 139 060	1 299 180	1 476 852
Hong Kong	5 039	5 851	6 336	6 510
Japan	116 807	123 460	128 470	129 029
Mongolia	1 663	2 190	2 847	4 423
Republic of Korea	38 124	42 793	46 403	51 178
SOUTH-EAST ASIA	359 482	444 031	534 182	689 736
Brunei Darussalam	185	266	333	399
Cambodia	6 400	8 246	10 046	13 266
Indonesia	150 958	184 283	218 661	273 349
Lao People's Democratic Rep.	3 205	4 139	5 463	8 046
Malaysia	13 763	17 891	21 983	28 503
Myanmar	33 821	41 675	51 129	68 743
Philippines	48 317	62 413	77 473	105 384
Singapore	2 415	2 723	2 997	3 290
Thailand	46 718	55 702	63 670	78 118
Viet Nam	53 700	66 693	82 427	110 638
SOUTH ASIA	948 414	1 200 568	1 495 500	2 043 908
Afghanistan	16 063	16 557	26 511	37 934
Bangladesh	88 219	115 593	150 589	220 119
Bhutan	1 245	1 516	1 906	2 861
India	688 856	853 094	1 041 543	1 371 767
Islamic Republic of Iran	38 900	54 607	68 759	105 966
Maldives	155	215	283	409
Nepal	14 858	19 143	24 084	33 080
Pakistan	85 299	122 626	162 409	248 116
Sri Lanka	14 819	17 217	19 416	23 656
PACIFIC	22 460	26 044	29 602	36 087
Australia	14 695	16 873	18 855	22 309
Cook Islands	18	18	17	17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17	22	27	38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76	99	122	172
Fiji	634	764	883	1 083
Guam	106	118	128	137
Kiribati	59	66	72	80
Nauru	8	9	10	12
New Zealand	3 113	3 392	3 662	4 051
Niue	3	3	2	2
Papua New Guinea	3 086	3 874	4 845	6 828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30	39	49	68
Republic of Palau	13	17	21	30
Samoa	155	168	171	172
Solomon Islands	225	320	429	680
Tonga	97	95	92	89
Tuvalu	8	9	11	12
Vanuatu	117	158	206	307

Sourc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printout of the 1990 revision of its global demographic estimates and projections, medium variant (New York, 1990).

Table 2. Annual rate of change by subregion and country or area

(percentage)

	1980-1985	1990-1995	2000-2005
ESCAP	1.79	1.78	1.37
EAST ASIA	1.18	1.30	0.78
China	1.23	1.41	0.83
Hong Kong	1.59	0.86	0.33
Japan	0.68	0.39	0.31
Mongolia	2.76	2.67	2.44
Republic of Korea	1.36	0.85	0.72
SOUTH-EAST ASIA	2.18	1.94	1.51
Brunei Darussalam	3.80	2.50	1.50
Cambodia	2.59	2.20	1.42
Indonesia	2.06	1.82	1.30
Lao People's Democratic Rep.	2.29	2.92	2.41
Malaysia	2.60	2.27	1.48
Myanmar	2.09	2.09	1.80
Philippines	2.63	2.28	1.84
Singapore	1.15	1.07	0.63
Thailand	1.99	1.35	1.23
Viet Nam	2.19	2.21	1.80
SOUTH ASIA	2.40	2.27	1.91
Afghanistan	-2.02	6.68	2.20
Bangladesh	2.73	2.69	2.44
Bhutan	1.80	2.27	2.29
India	2.21	2.08	1.71
Islamic Republic of Iran	4.05	2.01	2.54
Maldives	3.32	2.90	2.30
Nepal	2.59	2.34	1.97
Pakistan	3.82	2.87	2.46
Sri Lanka	1.67	1.26	1.02
PACIFIC	1.49	1.33	1.11
Australia	1.40	1.18	0.95
Cook Islands	-0.17	-0.18	-0.15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2.89	2.19	2.03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2.89	2.19	2.03
Fiji	1.97	1.51	1.28
Guam	1.24	0.79	0.63
Kiribati	1.06	0.99	0.83
Nauru	2.17	1.39	1.23
New Zealand	0.84	0.82	0.61
Niue	-2.39	-0.88	-0.76
Papua New Guinea	2.29	2.27	1.97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2.89	2.19	2.03
Republic of Palau	2.89	2.19	2.03
Samoa	0.91	0.33	0.05
Solomon Islands	3.77	3.10	2.59
Tonga	-0.27	-0.23	-0.20
Tuvalu	2.03	1.72	0.94
Vanuatu	3.07	2.80	2.29

Sourc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printout of the 1990 revision of its global demographic estimates and projections, medium variant (New York, 1990).

이와 마찬가지로 남동아시아도 브르나이 3.8%에서 싱가포르 1.15%에 까지 다양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아시아나 태평양지역 국가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20C말경에는 국가별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3. 出 産 力

○ 合計出産率

현재 出産力 推計에 의하면 ESCAP지역 TFR은 3.3이다. 그러나 이는 출산력 대체 수준에 도달한 선진국의 人口成長率인 TFR 2.0에 비교 하면 거의 2배에 이르는 비율이다. ESCAP지역 출산수준은 1970-1975년간과 1980-1985년간 사이에 31%가 감소하였으나 지역별로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여러가지 出産減少 要因 중에서도 특히 결혼 연령의 상승과 조직화된 FP사업이 가장 큰 이유이다. 지역 전체로서는 출산력이 매우 인상적일 만큼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특히 남아시아의 경우는 TFR이 4-7에 이르는 고출산 국가가 많이 있다. 앞으로의 출산감소 요인으로서 結婚年齡의上昇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나, 평균 결혼연령이 아직 20세인 이들 남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많은 여지를 남기고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結婚年齡이 다시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경우 결혼연령이(센서스나 조사에 의해 파악된 獨身比率에서 산출함) 1978년 24.4세 였으나 1983년에 23.3세가 되었고¹⁾ 스리랑카는 1979년 25.1세에서 1981년에 24.4세가 되었다.²⁾ 中國에서도 최근에 결혼연령에 관한 規制가 緩和됨에 따라 결혼연령이 약간 떨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결혼연령의 감소는 純 出生率을 증가시키게 된다.

中國, 日本, 韓國이 속해 있는 동아시아는 출산력이 이미 낮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ESCAP지역 출산력 감소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할 것이란 점은 중요하다. 인구가 적고 출산수준이 낮은 태평양 지역도 앞으로의 亞·太 地域 出

産力 減少에 얼마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아. 태 지역에는 TFR이 4정도이거나 또는 6이 넘고 인구가 1억 이상인 國家가 8개 있는데, 이들 국가의 출산수준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과거 10년과 같이 빠른 속도의 減少水準을 유지하기는 어렵다.³⁾

○ 粗出生率

ESCAP지역 평균 粗出生率(CBR)은 1980-1985년 26.9에서 1990-1995년에 23.9로 감소되고 2000-2005년에는 19.8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 물론 지역별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내에서도 국가별로 평균 추계치가 상당한 差異를 보이는 바, 표3에 지역별 국가별 추계치를 제시하였다.

Table 3. Crude birth rate by subregion and country or area
(Per thousand)

	1980-1985	1990-1995	2000-2005
ESCAP	27.8	26.4	21.2
EAST ASIA	18.5	19.7	14.6
China	19.0	20.8	14.9
Hong Kong	16.7	12.3	10.6
Japan	12.7	11.5	12.2
Mongolia	37.6	34.4	30.6
Republic of Korea	21.3	15.4	13.9
SOUTH-EAST ASIA	32.7	27.5	21.9
Cambodia	45.5	36.5	25.3
Indonesia	31.8	26.6	20.2
Lao People's Democratic Rep.	45.1	44.2	35.4
Malaysia	32.0	27.7	19.6
Myanmar	34.3	29.7	25.1
Philippines	35.6	30.4	24.7
Singapore	17.0	16.3	12.4
Thailand	27.8	20.0	18.6
Viet Nam	34.7	30.3	24.3
SOUTH ASIA	37.6	33.4	27.5
Afghanistan	48.9	52.0	39.0
Bangladesh	44.8	40.6	35.1
Bhutan	39.0	38.2	35.8
India	34.7	31.0	25.3
Islamic Republic of Iran	41.9	33.1	31.2
Nepal	42.9	36.3	29.6
Pakistan	50.3	41.9	32.0
Sri Lanka	26.9	20.7	17.2
PACIFIC	18.9	17.8	16.1
Australia	15.6	14.3	13.2
Fiji	30.8	24.0	21.0
New Zealand	16.0	15.8	13.6
Papua New Guinea	35.4	33.3	28.3

Sourc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printout of the 1990 revision of its global demographic estimates and projections, medium variant (New York, 1990).

4. 死亡力

과거 30-40년 동안 ESCAP 지역 死亡力은 계속 감소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 경향은 계속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다. 20C 말경에 아·태지역 평균 粗死亡

Table 4. Crude death rate by subregion and country or area
(Per thousand)

	1980-1985	1990-1995	2000-2005
ESCAP	9.7	8.5	7.5
EAST ASIA	6.6	6.7	6.8
China	6.7	6.6	6.6
Hong Kong	5.0	6.1	7.3
Japan	6.1	7.6	9.1
Mongolia	10.0	7.7	6.3
Republic of Korea	6.3	6.1	6.7
SOUTH-EAST ASIA	10.4	8.0	6.8
Cambodia	19.7	14.6	11.1
Indonesia	11.2	8.5	7.2
Lao People's Democratic Rep.	18.7	15.1	11.3
Malaysia	6.0	5.1	4.7
Myanmar	11.0	8.7	7.1
Philippines	8.5	7.1	6.0
Singapore	5.4	5.5	6.1
Thailand	8.0	6.5	6.3
Viet Nam	11.1	8.2	6.4
SOUTH ASIA	13.3	10.6	8.4
Afghanistan	23.0	22.1	17.0
Bangladesh	17.5	13.8	10.8
Bhutan	18.1	15.5	12.9
India	12.7	10.7	8.1
Islamic Republic of Iran	9.7	6.7	5.8
Nepal	17.0	12.9	9.9
Pakistan	14.4	10.5	7.4
Sri Lanka	6.3	5.8	6.0
PACIFIC	8.2	8.1	8.0
Australia	7.3	7.6	7.9
Fiji	8.0	6.4	6.0
New Zealand	8.1	8.3	8.2
Papua New Guinea	12.5	10.6	8.6

Sourc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printout of the 1990 revision of its global demographic estimates and projections, medium variant (New York, 1990).

率(CDR)은 7.8정도가 될 것이나 아직도 소지역별로 약간씩 그리고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남아시아 몇몇 국가는 CDR이 12-15의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동아시아 몇몇 국가에서는 증가하기도 할 것이다. ESCAP지역 국가간의 死亡力 變遷 樣相이 이처럼 다양함으로 1980년대에도 과거 30년전과 같은 국가간의 사망력 차이가 그대로 남아있고 또는 더 커지기도 하였다. 표 4에 국가별 소지역별 CDR 推計値가 제시되었다.

표5에는 嬰兒 死亡率 推計値가 제시되었는데, 이표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영아 사망율이 減少하지만 적어도 동아시아 1개국과 남아시아 4개국의 5개 국가가 1990-1995년동안 최소 100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동안에 동아시아는 5-60, 동남아시아는 7-116, 남아시아는 24-162의 영아사망율을 나타냈다. 20C말경에는 최소 11개 국가에서 영아사망율이 20미만으로 감소될 것이지만 남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는 100이상을 계속 기록할 것이다.

出生時 期待壽命은 표6에 제시된 바와같이 1980-1985년 추계가 남아시아 4개국과 동남아시아 2개국 모두 최소 6개 국가가 50미만으로 추계되었다. 2000-2005년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기대수명이 몇년씩 길어질 것이지만 남아시아의 몇국가에서는 그때까지도 “期待壽命 50 미만” 카테고리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그때에는 동남아의 日本이 79.7세로 아·태지역 및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기대수명을 기록하게 될 것이고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가 76.2세, 남아시아의 스리랑카가 73.8세, 그리고 태평양 지역의 오스트레일리아가 78.2세의 기대수명을 보이게 될 것이다.

1980-1985년에 비해서 2000-2005년에는 ESCAP지역의 상당한 인구가 낮은 사망률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점은 지적할만 하다. 1980-1985년 사이에는 단지 5개국가(오스트레일리아, 홍콩,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1억 4,200만명)만이 平均 期待壽命이 70세 이상이었으나 2000-2005년에는 최소한 11개국가 16억 800만명 인구의 기대수명이 70세 이상이 될 것이다.

대체적으로 1950년대와 1960년대에의 보건관련 사업은 특정 傳染性 疾病管理에 중점을 두었으며 保健關聯 構造와 保健人力에의 큰 投資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

Table 5. Infant mortality rate by subregion and country or area
(Per thousand births)

	1980-1985	1990-1995	2000-2005
ESCAP	82	63	50
EAST ASIA	36	26	18
China	39	27	19
Hong Kong	10	6	6
Japan	7	5	5
Mongolia	78	60	46
Republic of Korea	30	21	15
SOUTH-EAST ASIA	75	55	40
Cambodia	160	116	90
Indonesia	90	65	51
Lao People's Democratic Rep.	122	97	74
Malaysia	28	20	15
Myanmar	80	59	41
Philippines	51	40	29
Singapore	10	7	6
Thailand	37	24	18
Viet Nam	76	54	36
SOUTH ASIA	113	91	71
Afghanistan	183	162	142
Bangladesh	128	108	85
Bhutan	139	118	99
India	110	88	67
Islamic Republic of Iran	78	40	30
Nepal	139	118	99
Pakistan	120	98	79
Sri Lanka	35	24	13
PACIFIC	28	21	18
Australia	10	7	6
Fiji	31	24	19
New Zealand	12	9	7
Papua New Guinea	74	53	42

Sourc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printout of the 1990 revision of its global demographic estimates and projections, medium variant (New York, 1990).

다. 여러가지 질병관리와 사망률은 국가 사회경제적 發展段階와는 대개 별도로 적용시켜 왔다. 질병관리와 사망률에 대한 다양한 接近方法과 社會經濟的 變化의 정도 및 양상이 국가마다 다름에 따라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의 사망률 감소 속도는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이지역 사망률은 결국 비교적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고, 특히 保健醫療 施設이 시골지역에 까지 확대된 국가에서 그 成果가 컸다.

Table 6. Life expectancy at birth by subregion and country or area

(In years)

		1980-1985	1990-1995	2000-2005
ESCAP				
	Both sexes	61.8	65.5	68.6
	Males	60.7	64.2	67.2
	Females	62.7	66.8	70.1
EAST ASIA				
	Both sexes	68.9	71.8	73.9
	Males	67.4	69.9	71.9
	Females	70.4	73.8	76.0
China				
	Both sexes	67.8	70.9	73.2
	Males	66.7	69.2	71.4
	Females	68.9	72.6	75.1
Hong Kong				
	Both sexes	75.4	77.6	78.6
	Males	72.6	75.1	76.1
	Females	78.3	80.4	81.5
Japan				
	Both sexes	76.9	78.8	79.7
	Males	74.2	75.9	76.8
	Females	79.7	81.7	82.6
Mongolia				
	Both sexes	58.8	63.7	67.7
	Males	57.5	62.3	66.1
	Females	60.0	65.0	69.4
Republic of Korea				
	Both sexes	67.7	70.8	73.2
	Males	64.6	67.7	70.2
	Females	71.0	73.7	76.0
SOUTH-EAST ASIA				
	Both sexes	57.9	63.2	67.3
	Males	56.1	61.3	65.3
	Females	59.7	65.1	69.3
Cambodia				
	Both sexes	43.5	51.0	55.9
	Males	42.0	49.5	54.3
	Females	44.9	52.4	57.6
Indonesia				
	Both sexes	56.2	62.7	67.1
	Males	54.5	60.9	65.2
	Females	58.0	64.5	69.0

(Continued on next page)

Table 6....(Continued)

(In years)

	1980-1985	1990-1995	2000-2005
Lao People's Democratic Rep.			
Both sexes	46.0	51.0	56.0
Males	44.5	49.5	54.5
Females	47.5	52.5	57.5
Malaysia			
Both sexes	68.0	70.8	73.1
Males	66.0	68.7	71.0
Females	70.0	73.0	75.4
Myanmar			
Both sexes	57.5	62.5	66.9
Males	55.8	60.8	65.0
Females	59.3	64.3	68.8
Philippines			
Both sexes	61.9	65.0	68.1
Males	60.2	63.1	66.1
Females	63.7	67.0	70.2
Singapore			
Both sexes	71.8	74.5	76.2
Males	69.2	71.8	73.6
Females	74.6	77.4	79.0
Thailand			
Both sexes	62.7	67.1	70.2
Males	60.7	65.1	68.0
Females	64.8	69.2	72.4
Viet Nam			
Both sexes	59.0	63.9	68.0
Males	56.7	61.6	65.7
Females	61.1	66.0	70.3
SOUTH ASIA			
Both sexes	54.3	59.2	63.8
Males	54.2	58.9	63.1
Females	54.3	59.5	64.4
Afghanistan			
Both sexes	40.5	43.5	47.5
Males	40.0	43.0	47.0
Females	41.0	44.0	48.0
Bangladesh			
Both sexes	48.6	52.9	57.1
Males	49.1	53.1	57.1

(Continued on next page)

Table 6.....(Continued)

(In years)

	1980-1985	1990-1995	2000-2005
Bhutan			
Females	48.1	52.6	57.1
Both sexes	45.9	50.0	54.2
Males	46.6	50.6	54.6
Females	45.1	49.4	53.9
India			
Both sexes	55.4	60.4	65.1
Males	55.6	60.1	64.4
Females	55.2	60.7	65.9
Islamic Republic of Iran			
Both sexes	60.6	67.1	70.3
Males	59.4	66.6	69.2
Female	63.0	67.8	71.4
Nepal			
Both sexes	48.2	53.5	58.8
Males	49.0	54.0	59.0
Females	47.5	53.0	58.5
Pakistan			
Both sexes	54.0	59.0	63.8
Males	54.0	59.0	63.6
Females	54.0	59.0	64.0
Sri Lanka			
Both sexes	68.9	71.6	73.8
Males	67.0	69.5	71.6
Females	71.0	73.8	76.0
PACIFIC			
Both sexes	70.1	72.5	74.5
Males	67.1	69.6	71.8
Females	73.3	75.6	77.5
Australia			
Both sexes	75.2	76.9	78.2
Males	71.9	73.7	75.2
Females	78.7	80.2	81.2
Fiji			
Both sexes	62.0	65.9	69.4
Males	59.9	63.8	67.1
Females	64.0	68.2	71.7
New Zealand			
Both sexes	73.7	75.6	77.2
Males	70.7	72.7	74.3

(Continued on next page)

Table 6....(Continued)

(In years)

	1980-1985	1990-1995	2000-2005
Females	76.9	78.6	80.2
Papua New Guinea			
Both sexes	51.9	55.9	59.9
Males	51.2	55.2	59.2
Females	52.7	56.7	60.7

Sourc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printout of the 1990 revision of its global demographic estimates and projections, medium variant (New York, 1990)

사망력과 출산력이 감소함에 따라 젊은 연령층의 扶養 負擔이 낮아지게 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동반하는 것이 死亡原因 構造, 특히 産業化와 관련된 사망원인 구조의 변화이다. 交通事故 위험과 職業的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직업이 질병의 한 요인으로 간주되는 한편 다른 직접, 간접 효과를 갖는 여러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요인이 직업과 특정 질병의 발병사이에 媒介가 될 것이다. 農夫나 農業勞動者는 傳染性 및 寄生蟲 疾病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수, 행정가 및 다른 精神勞動者들은 정신불안, 뇌 및 심장혈관 질환, 악성종양과 같은 질병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므로 경제활동 인구의 健康增進을 추구하는 政策 樹立者는 이런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人口移動과 都市化

어느 나라나 인구의 空間 分布는 국가발전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國內移動과 都市化가 공간적 분포의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서 모든 국가의 주 관심사이다. 국제이동 또한 중요한데 특히 歸還 勞動者

를 再安住시킨다는 맥락에서 중요하다.

○ 國內移動과 都市化

년도별 및 국가별 도시 농촌의 人口分布 比較는 용어사용에 대한 정의가 같은 국가내에서도 시기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나라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용가능한 자료를 보면 1970-1985년간 모든 지역의 都市人口比率이 增加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도시인구 증가 추세는 20C 및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아시아 지역 1965-1970년 동안의 도시인구 증가율은 3.3%로 농촌의 2.2%와 비교된다. 1985년에서 1990년 사이에 農村人口 增加率은 년 3%인 반면에 都市人口 增加率은 년 1%로 떨어질 전망이어서 도시, 농촌 인구증가율의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大都市 規模 및 成長이 관심의 대상이다.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는 1985년에 5개 였으나 2000년경에 9개 이상이 추가될 전망이며 인구 500만 이상의 도시는 약 24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나라가 人口分布의 變化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⁴⁾ 1983년 UN이 126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調查結果에 따르면 단지 3개국만이 인구분포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는데, 그중에 ESCAP지역 국가는 단 하나로 나부루였다. 그러므로 대부분이 현 인구분포를 변화시키고 集中趨勢를 되돌릴 수 있는 人口政策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中國은 오래전에 대도시 지역에서 농촌으로, 그리고 동부지방에서 인구밀도가 덜 조밀한 변방으로의 人口移住 獎勵政策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한 여러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旅行 許可制度和 食糧配給制를 통한 직접 통제인데, 이는 단지 특정 지역에서만 실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규모와 성장, 인구분포, 인구자질의 3가지 측면을 인구정책에서의 주요문제로 파악하고 발리와 자바에서 다른 섬으로 移動 安住시키는 移住政策 事業을 대규모로 실시하여 왔다. 또한 인구분포의 不均衡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농촌 노동인구를 위해 技術訓練 機會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곽 섬지역에 지역사회개발 및 産業工團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이란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人口移動을 緩和하고 人口分布 不均衡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구분산사업, 농촌에 혜택을 주는 투자 및 사회경제 활용정책을 실시하여 왔다⁵⁾. 말레이시아도 人口分散에 대한 관심표시의 일부로서 농촌지역개발 및 재이주계획, 저소득지역에 산업개발 장려, 새 지역사회 건설 및 마을 건설 등에 우선 순위를 두어 왔다⁶⁾. 파키스탄에서도 도시와 농촌개발의 통합, 농산물 생산 증가 및 산업체 공단 유치 정책을 통해 지역 인구분포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⁷⁾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小都市 人口流入을 위해서 1970년대 초반부터 다른 정책들과 결합시켜 稅制減免 및 貸出 惠澤을 주어 왔는데, 그 결과로서 1960년대에 년 9.8%이던 서울인구 증가율이 1970년대에는 4.5%로 떨어졌다.⁸⁾

그러나 도시화 수준이 발전목표에 불충분하다고 걱정하는 나라도 상당수 있다. 부탄과 몽골리아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移住獎勵 政策을 채택하였으며, 특히 몽골리아는 都市化를 促進하기 위해 제2도시에 산업공단을 건설하고 있다.

태평양지역의 대부분 국가정부는 인구분산과 관련하여 두가지 종류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첫째로 농촌에서 도시 또는 변두리 섬에서 중심 점지역으로의 國內移動이며, 둘째는 國際移民과 관련된 것으로 추후에 다시 논의할 것이다.

人口 再配置 政策 효과에 대한 유용한 자료는 많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인구학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 정책은 얼마되지 않으며 그 사회적 재정적 대가는 매우 높다고 한다⁹⁾. 가격, 외환율과 연결시킨 것과 같은 巨視的 政策이 아마도 통합 농촌개발사업, 재안주계획 및 거주제한과 같이 단지 농촌-도시 이동만을 우려해 고안된 사업보다는 인구분산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인구분산에 미친 영향은 측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 목적이 대체로 인구분산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¹⁰⁾.

○ 國際移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평양지역 국가에서는 특히 國際移動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다. 이들 국가의 이민율은 높고 특히 대부분이 教育 및 技術水準이 높은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떠난 필수적 기술이 요구되는 자리는 외국의 임시적인 서비스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1970년대에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상당수의 永久 또는 臨時 國際移動이 있었는데 특히 서아시아로 많이 갔다.¹¹⁾ 이들 이동은 상당 부분이 미숙련 노동자나 단순기술과 관련된 사람에 국한된 것이므로 인력자원 개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비록 이같은 이주에 의한 혜택이 남자세대주 부재에 의한 역효과로 어느 정도 상쇄된다고 해도 이들이 보내는 送金으로 그의 식구들은 보다 나은 영양, 보건 의료 및 교육을 누릴 수 있었다.

국가경제도 재빨리 이들 勞動人口의 損失에 적응해 갔다. 사실 서아시아에서의 노동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몇몇 나라는 정부 職業學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私設 訓練課程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동자는 때때로 특별한 職種이나 地位에서만 뽑혀 갔으며 따라서 특정한 병목현상이 생겨났다.

1983년부터 서아시아로 이동하는 노동자의 수와 그들의 송금액수가 모두 줄어들기 시작했고, 어떤 경우는 이동자가 돌아와서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생겨났다. 최근에 이민수요가 감소됨에 따라서 수요가 높던 때에 투자했던 훈련시설 이용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개발 측면에서 볼 때 이동자가 專門職이나 熟練勞働者일 때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들 인력은 투자기간이 긴 경우 이므로 이를 代替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맡은 기관의 수용능력에 관해 追加負擔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국제이동은 이동자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든 費用의 國家的인 큰 消耗을 수반한다.

6. 年齡構造의 變化의 여러 側面

人口 年齡分布는 과거 출산력과 사망력에 달려있다. 또한 국제이동이 많은 영향

력을 주지만 이 지역에서는 단지 태평양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이다. 子女 出產 터울에 대한 부모의 결정도 연령분포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출산력 및 사망력 결정요인 보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망력과 출산력에 영향을 주는 政策은 자연히 人口成長과 함께 年齡構造도 결정해 버린다. 출산력 감소는 특히 인구의 嬰幼兒 比率 減少 效果와 人口老齡化를 낳는다. 그러나 사망력 감소 영향력은 이처럼 명확하지 않다. 초반에는 영유아 사망력 감소가 어린이 비율을 증가시키나,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출산력과 사망력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노령 인구비율을 증가시키고 人口成長에 어떤 “契機”를 가져온다. 이와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중요한 측면은 아래에 언급된 바 출산율 감소, 인구노령화, 노동력 성장 속도 하락 잠재력 등 이다.

○ 出產力 減少의 緩和

오늘날 아·태 지역의 높은 人口成長率은 몇몇 나라의 높은 출산력 뿐아니라 높은 출산력과 과거 30년간 떨어진 사망력에 의해 마련된 “契機”(manentume)에 의한 것이다. 과거의 높은 출산력과 떨어지고 있는 사망력은 현재 가임연령에 들어선 여성이 전체 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이 비율은 또 20C말까지 계속 증가함을 뜻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음 세대의 여성수가 그 전세대의 여성수를 능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 1인당 出產數는 급격히 減少한다고 해도 出產率은 아직 높고 總 出生數는 前보다 많아진다. 결과적으로 성장율은 사실상 변화하지 않게 된다. 대부분 나라에서 출생율 감소 속도를 늦추는 潛在要因이 있는데, 이는 곧 젊은 기혼여성이 보다 효과적인 가족계획사업과 다른 사회 경제적 변화에 의해 출산력을 급격히 낮추어서 相殺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성장율의 감소를 방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출산조절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이같은 현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人口老齡化

표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지역 모든 나라에서 65세 이상 人口比率이 증가

Table 7. Proportions of total population by age group, subregion and country or area
(Percentage)

	Aged 0-4		Aged 5-14		Aged 15-64		Aged 65+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ESCAP REGION	11.8	10.7	20.6	20.2	62.5	63.2	5.1	5.9
EAST ASIA	9.2	8.4	16.5	16.7	68.0	67.2	6.3	7.7
China	9.5	8.5	16.7	17.1	68.0	67.4	5.8	7.0
Hong Kong	7.7	6.3	14.3	13.7	69.2	69.2	8.8	10.8
Japan	5.6	6.2	12.9	11.2	69.8	66.8	11.7	15.8
Mongolia	16.9	15.7	24.9	26.6	54.9	54.1	3.3	3.6
Republic of Korea	8.9	7.6	17.6	15.5	68.8	70.6	4.7	6.3
SOUTH-EAST ASIA	12.6	11.0	23.7	21.0	59.8	63.4	3.9	4.6
Cambodia	16.5	12.7	18.4	25.9	62.2	57.9	2.9	3.5
Indonesia	11.6	10.0	23.4	19.6	61.1	65.4	3.9	5.0
Lao People's Dem. Rep.	16.4	14.8	26.2	25.6	54.4	56.4	3.0	3.2
Malaysia	13.2	10.3	23.0	21.7	60.0	63.6	3.8	4.4
Myanmar	13.4	12.5	23.8	22.4	58.7	60.4	4.1	4.7
Philippines	14.7	12.5	25.4	23.7	56.5	60.1	3.4	3.7
Singapore	7.9	6.7	14.9	14.4	71.6	71.8	5.6	7.1
Thailand	10.2	9.1	22.5	17.4	63.4	68.5	3.9	5.0
Viet Nam	14.0	12.4	25.2	23.2	56.4	59.9	4.4	4.5
SOUTH ASIA	14.5	13.1	24.1	23.5	57.3	58.9	4.1	4.5
Afghanistan	17.9	17.9	24.1	25.0	55.2	54.4	2.8	2.7
Bangladesh	16.5	15.4	27.4	25.2	53.2	56.5	2.9	2.9
Bhutan	15.3	15.4	24.4	24.6	56.9	56.5	3.4	3.5
India	13.4	12.2	23.1	22.3	59.0	60.4	4.5	5.1
Islamic Rep. of Iran	18.0	15.2	25.9	27.8	52.9	53.6	3.2	3.4
Nepal	16.1	14.4	26.1	25.2	54.7	57.0	3.1	3.4
Pakistan	18.8	15.2	26.9	28.1	51.6	53.8	2.7	2.9
Sri Lanka	10.5	8.9	22.0	18.3	62.3	66.3	5.2	6.5
PACIFIC	9.5	8.1	17.3	17.1	64.1	65.3	9.1	9.5
Australia	7.4	6.9	14.8	13.9	66.8	67.4	11.0	11.8
Fiji	12.6	9.7	24.1	20.7	59.4	64.6	3.9	5.0
New Zealand	7.6	7.1	14.9	14.3	66.5	67.3	11.0	11.3
Papua New Guinea	17.1	15.2	24.9	26.8	55.4	55.5	2.6	2.5

Sourc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 1988 medium variant (ST/ESA/SER.A/106)*.

할 것이지만, 이와같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율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다. 2000년경에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10.8%, 7.1%가 되어 1990년의 11.7%인 일본과 비교된다¹²⁾. 그러나 실제 人口數는 대부분 상당히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中國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1990년 7,200만에서 2000년에 9,100만으로 증가할 것이며, 인도 인구도 같은 기간에 3,800만에서 5,300만으로 증가할 것이다. 즉 2000년에는 ESCAP지역 65세 인구가 모두 1억 8100만에 달할 것이다.

급격히 증가하는 老齡人口數와 아·태지역 인구중 老人人口比率이 增加함에 따라 정책수립시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지역 사회, 경제적 추세로 보아서 부모는 그들 노후에 그들 자녀가 돌봐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농촌은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가버림에 따라 농촌노인을 돌보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공공주택 정책은 3-4세대 가구 장려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또한 養老院 設立 政策案을 세우지 않으려면 혼자사는 노인의 요구 및 노인을 돌보는 家庭의 요구에 걸맞는 여러가지 政策支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노인에 대한 家庭 및 地域社會 支援制度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증가하는 노동인구의 退職後 확실한 所得保障을 위해서 적절한 사립 및 피고용자 退職保障 基金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기관도 노인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정부는 이들 기관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정 및 기타 지원을 통해 이같은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

○ 勞動人口 增加

勞動人口로의 유입수는 대략 15년전의 出產力을 反映하므로 노동력 증가율은 인구성장율보다 높고, 따라서 정부는 雇傭機會 創出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1980-1990년 사이에 이지역 노동력 증가율은 전체 인구증가율보다 0.5% 포인트가 높았다.¹³⁾ 출산력 감소가 늦으면 늦을수록 두 비율간의 차이는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출산력이 급격하게 감소했던 동아시아에서는 인구성장율이 0.9% 포인트 높았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두비율이 거의 같아졌다. 남동아시아는 출산력이 보다

서서히 이루어진 곳으로서 1980년부터 2010년까지 노동력 증가율이 인구증가율보다 0.4% 포인트 높을 것으로 추계된다. 출산력 감소 속도가 아주 느린 남아시아는 분명 1990년까지 勞動力 成長率이 人口增加率을 능가하지 않았고 2000년에 가서야 0.4%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사망율과 출산율의 감소는 사회의 人口老齡化를 낳는다. 초기에는 낮은 출산력이 노동인구에 부양부담을 줄임으로써 발전에 利益을 준다. 가정과 사회는 자녀 양육과 교육 지출비가 적어지면서 貯蓄과 生産投資 액수를 늘릴 수 있다. 젊고 최근에 교육받은 근로 인구 비율이 높아 生産力을 자극하고 한편으로 住宅과 消費財에의 요구가 창출된다.

최근 ESCAP지역은 역사상 가장 경제학적으로 풍요로운 年齡構造를 향유한다. 1980년과 1990년 사이에 15세 미만 인구비율이 37%로 떨어졌고 대부분의 연령구조 변화가 15-39세의 젊은 勞動年齡層으로의 流入이다. 이 연령집단 비율이 1990년에 거의 44%에 달하겠으나 앞으로는 차츰 줄어들 전망이다. 1990년 이후 인구노령화는 가속화되어 40-64세 및 65세 인구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동아시아 보다는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出生力과 死亡力의 減少速度가 낮았기 때문에 이들 인구 年齡構造 變化도 보다 천천히 나타난다. 이 두지역에서 40-64세 인구비율의 증가가 그보다는 더 클 것이지만 15-39세 인구비율도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0년에 가서야 1980년 동아시아의 그들 인구비율보다 낮아지게 된다.

7. 結 論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出生力이 과거 10년동안 처럼 빠르게 감소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전체 인구성장은 可妊年齡 女性, 勞動力, 扶養人口數 및 比率과 마찬가지로 年齡構造 變化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들 인구집단의 절

대크기 변화는 사업에 중요한 의미를 함유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中國의 가입여성 인구수는 1990년 3억 1200만에서 2000년에 3억4,500만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0-4세 人口數는 印度 및 中國에서 각각 1억이 넘는다. 그러므로 있을지도 모을 베이비 붐을 막고 더 나가서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 가족계획사업을 量 및 質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20세기 말까지는 勞動力이 빠르게 增加할 것이므로 人力과 經濟 전반에 걸쳐 이를 고려할 長期 計劃이 樹立되어야 한다. 年齡構造의 變化는 또한 소비양상의 변화(저축 및 투자)를 뜻한다. 그러므로 生産, 消費, 投資 및 分配 計劃에 이 연령구조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과거 수년동안 ESCAP지역 死亡力 수준이 상당히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출생시기대수명은 선진국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 나라가 사망력 조건을 보다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런 개선은 人口學的으로 뿐아니라 社會的으로도 매우 바람직하다. 점진적인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死亡樣相도 바뀌고 있다. 사망력 분석자료의 결핍은 매우 중요한 제한점이다. 따라서 질적으로 믿을만한 충분한 死亡力 資料生産이 필요하다. 많은 나라가 곧 선진국이 직면했던 유사한 老齡問題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都市化 수준이 대체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ESCAP지역은 1985년에 인구 500만 이상 대도시가 16개나 되었는데, 그중에 5개가 인구 1억이 넘는다. 2000년에는 다시 8개 도시가 인구 500만 이상의 도시로 추가 될 것이다.

ESCAP지역 여러나라가 都市成長 速度를 늦추는 정책을 채택해 왔는데, 그 접근 방법으로 農村開發, 産業體 再配置, 衛星都市 만들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사용된 전략은 대체로 비효과적이거나 시행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서 費用-效果는 의문이다.

Footnotes

- 1/ T.H. Hull, "Fertility trends in the Philippines", Research Note No. 50 (Department of Demography,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1985).
- 2/ ESCAP, "The influence of policy change on method choice and fertility", paper published in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m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APSS No. 84, 1987.
- 3/ ESCAP, 1989 ESCAP Population Data Sheet (Bangkok, 1989).
- 4/ Quoted in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4*,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 97.
- 5/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Inventory of Population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87.III H.2), p. 260.
- 6/ *Ibid.*, p. 313.
- 7/ *Ibid.*, p. 393.
- 8/ World Bank, *op.cit.*, p. 100.
- 9/ *Ibid.*, p. 98.
- 10/ For a more thorough discussion of these issues, see Pietro Garau, "Big cities: myths and challenges", *Populi*, vol.13, No. 1, 1986, pp.57-63.
- 11/ See ESCAP,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and remittance between the developing ESCAP countries and the Middle East: trends, issues and policies" (forthcoming).
- 12/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ject, 1988, medium variant, ST/ESA/SER.A/106.

- 13/** United Nations, *World Demographic Estimates and Projections, 1950-2025* (ST/ESA/SER.R/79). The population and labour force data are based on early, optimistic projections because revised labour force projections have not yet been published by the United Nations.